



목차

1 학습안내

1

2 강의

3

3 Lecture

24

4 讲义

51

5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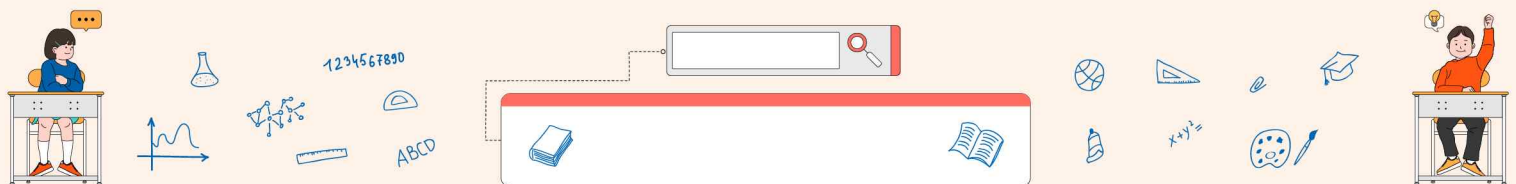
70

6 토론

75

7 자료

77



학습안내

01

과목소개

<한국경제와 학교 교육>은 한국의 학교 교육의 형성, 확대 및 발전 과정을 살펴본다. 이 과목은 수강생들에게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인적자본의 축적을 이끌어 낸 학교 교육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현재 한국 교육이 직면한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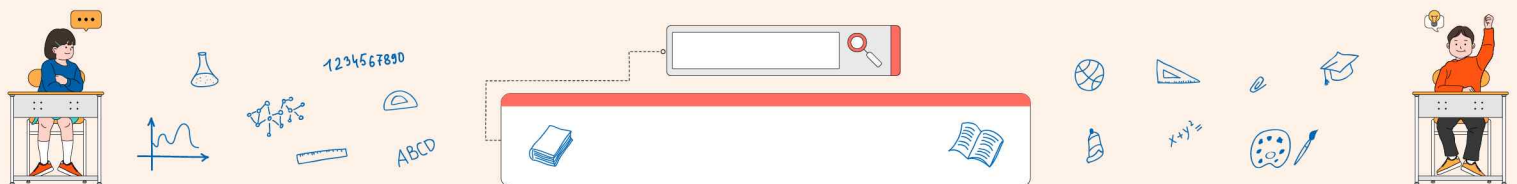
학습목표

- (1) 한국의 정규 초등, 중등, 고등교육 제도와 비정규 학교 교육의 형성, 확대, 발전과정을 통해 인적자본 축적의 기틀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이해한다.
- (2) 교사, 재정, 여성의 측면에서 한국 학교 교육이 지닌 역사적 경험과 특수성을 살펴보고, 한국 학교 교육의 발전 과정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
- (3) 사교육, 평준화, 학업성취도와 관련한 쟁점들을 검토하고 한국 학교 교육의 직면한 과제에 대해 탐구한다.

03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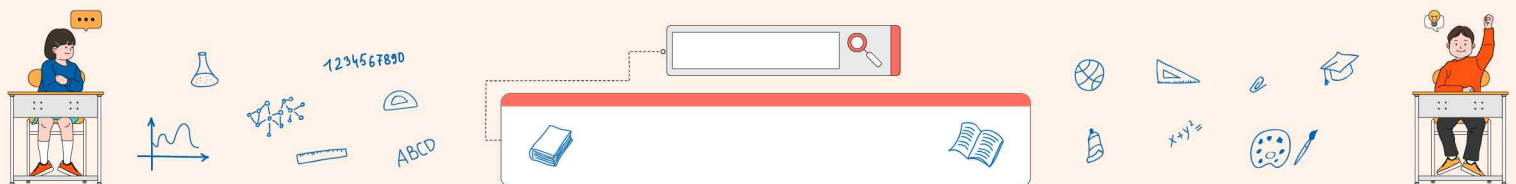
흔히 한국은 부족한 자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성장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고 이야기한다. 가난한 식민지 국가였던 한국이 독립 후 전쟁을 겪으며 황폐화되었지만 결국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낸 데에는 우수한 인적자본의 역할이 상당했다. 이 강의에서는 우수한 인적자본의 축적을 가져온 한국 학교 교육의 경험을 주제별로 학습한다. 이 강의가 수강생들이 한국 학교 교육 성공 사례의 배경, 원인, 결과는 물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명암과 현재 남겨진 과제에 대해 더욱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04

주차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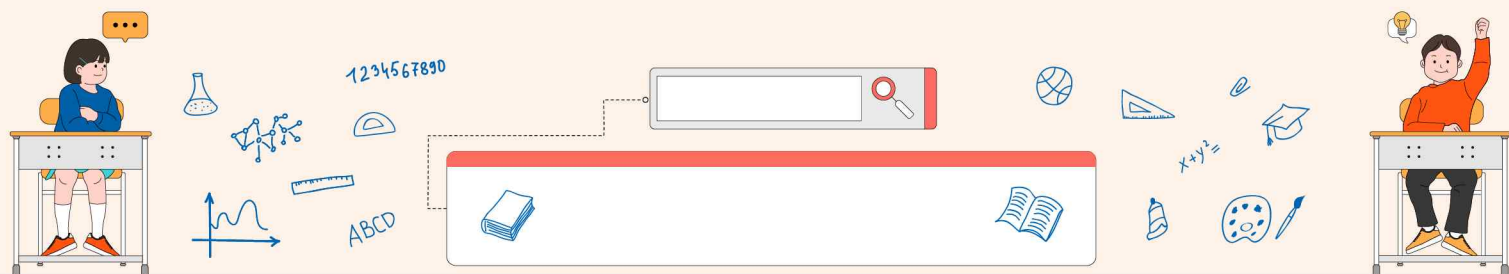
1주차	한국의 학교 교육
2주차	한국 학교교육의 형성
3주차	유아 및 초등교육
4주차	중등교육
5주차	고등교육
6주차	교원
7주차	교육재정
8주차	여성
9주차	사교육
10주차	학교 평준화
11주차	시험성적자료로 살펴본 한국교육의 현황과 과제
12주차	학교 밖 학교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강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3

주차

유아 및 초등교육

3-1

식민지기 초등교육의 성장 1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와 학교 교육> 강의를 맡은 고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의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한국의 학교 교육 제도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진화해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3주차 강의에서는 한국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보편적으로 확대된 과정과 이후 나타난 문제점 및 과제들에 대해 하나씩 논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민지기의 초등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민지기 이전에 한국에서는 소학교와 중학교를 통한 초중등 교육체계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학교 수나 학생 수에 있어서는 주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전 강의들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식민지기에는 이러한 교육제도가 정비됩니다.

조선인, 즉 한국인 학생들을 위한 초등교육기관은 보통학교로 이름이 바뀌었고, 중등교육기관의 이름은 남학교의 경우 고등보통학교, 여학교의 경우 여자고등보통학교가 됩니다.

당시에 여전히 소학교와 중학교, 고등여학교가 있었지만, 이 학교들은 식민지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위한 학교였습니다. 일본인 교육은 식민지에서도 일본에서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식민지 정부는 한국인에 대한 교육을 처음에는 일본과 동일하게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은 1910년 관립소학교의 수업 광경입니다. 교실 안에 앉아있는 학생 수는 30~40여 명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은 모두 남학생으로 보이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머리를 땋아 묶은 경우도, 신식으로 짧게 자른 경우도 보입니다.



철판 앞에 서 있는 교사는 두 명입니다. 흰 한복을 입은 교사는 한국인 선생으로 보입니다. 철판에 적힌 내용 역시 한글입니다. 아마도 한글 독본과 관련한 내용을 가르치는 중으로 보입니다. 옆에 양복을 입고 서 있는 사람은 일본인 교사로 생각됩니다.

보통학교에서는 조선어, 즉 한국어도 가르쳤고 일본어도 가르쳤습니다. 한문 교육도 이루어졌습니다. 수신이라는 과목을 통해 도덕, 사상, 국가관 등을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재봉, 수예, 농업, 상업 등 실과수업도 이루어졌습니다. 사진은 1910년대 후반 보통학교의 실과수업 모습입니다.

초등교육이 점차 확대되면서 보통학교의 교육연한도 일본인 소학교와 같이 6년으로 연장되고, 수업 내용도 통일되기 시작합니다.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 이후에는 조선어 과목을 제외하면 한국인 학교와 일본인 학교의 교육 내용이 같아집니다. 종전에 별도로 양성했던 한국인 학교 교원과 일본인 학교 교원도 이제 하나로 통합됩니다.

이때부터 조선어는 선택과목이 되어 학교장 재량에 따라 수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1941년 국민학교령이 선포되면서 조선어 과목은 사라지게 됩니다.

근대 이전부터 전해오던 교육기관인 서당은 식민지기에도 계속 남아 운영되었습니다. 서당은 정규 초등교육기관인 보통학교와 경쟁보다는 보완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즉, 보통학교를 가지 않고 서당만 다니기보다는, 점차 보통학교를 다니면서 방과 후에 서당에도 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식민지기 통계를 보면 1911년 전국에 16,540개의 서당이 있었습니다. 서당의 수는 1920년에는 25,482개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1943년에는 2,679개만이 남습니다.

서당은 종종 전근대적인 낡은 교육으로 신식 교육과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사진은 식민지기에 조선총독부에서 제작한 사진엽서입니다. 오른쪽 위에는 전통 서당의 수업 장면, 왼쪽 아래에는 신식 보통학교의 수업 장면이 서로 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서당과 보통학교의 대비를 통해 식민지기 교육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식민지기에 초등교육이 양적으로 성장한 과정은 취학을 추이가 잘 나타냅니다. 취학률은 학령인구 대비 취학생 수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식민지기 취학률을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인구 통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식민지기에는 5년 단위로 국세조사, 즉 인구센서스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조사 내용이 충분히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쇄된 형태로 남아있는 보고서에는 5세 단위로 나누어진 연령대별 인구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학령인구의 파악이 어렵고, 이 때문에 정확한 취학률의 계산 역시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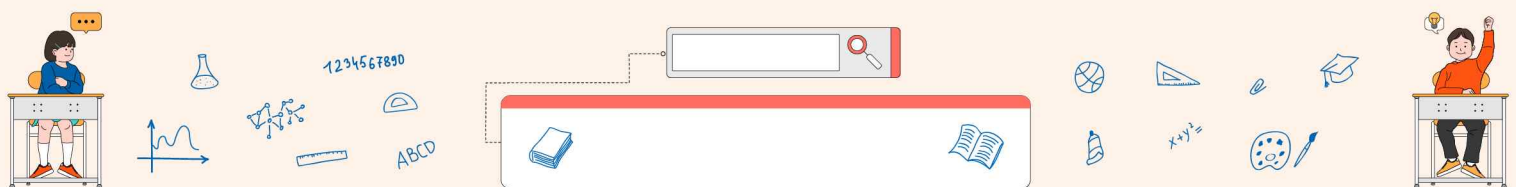
또 다른 이유는 학령의 변동입니다. 식민지기 보통학교는 처음에는 4년제였다가 나중에 6년제로 교육연한이 연장됩니다. 학교 제도가 도입되어 확산되는 초창기에는 취학연령이 불분명해지는 점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교육의 형성기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문헌에서는 정확한 학령인구 대비 취학률 대신 5세부터 14세까지의 인구 대비 취학생 비율을 계산해서 살펴봅니다. 이 수치의 장점은 5세 단위로 제시되는 인구 통계를 별다른 가공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시대와 지역, 국가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비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5세부터 14세까지의 인구가 보통 초등학교 학령인구보다 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취학률 수치 자체가 낮게 나오고, 연령별 인구구조 변동에 따라 실제 취학률과는 다소 다른 값이나 추이가 관측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인구 통계와 조선총독부 행정통계를 이용하여 계산한 5~14세 인구 대비 취학률입니다. 국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연도의 인구는 로그선형 추세로 추계했습니다. 파란색 선이 보통학교 취학률을 보여줍니다. 1910년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 다소 서서히 증가하던 보통학교 취학률은 이후 두 번의 급성장기를 맞이합니다.

첫 번째 급성장기는 1919년부터 1925년 무렵까지였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일본의 식민지 통치 정책에 변화가 생기며 학교 교육 정책도 변화하였고, 초등교육의 팽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후 한동안 정체되던 취학률은 1932년 무렵부터 다시 빠르게 증가합니다. 이때의 증가 추세는 식민지기 말까지 지속됩니다.



노란색 선은 5세부터 14세 인구 대비 서당을 다니는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일종의 서당 취학률입니다. 1910년대까지는 서당 취학률이 보통학교 취학률보다 높았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인들이 보통학교보다 서당을 더 선호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보통학교를 더 선호했지만, 보통학교가 충분치 않았고 반면에 서당은 충분히 많았기 때문에 그러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학교 공급이 충분치 않아 서당 취학률이 높았다는 뜻입니다. 1910년대에 다소 증가했던 서당 취학률은 1920년대부터 감소합니다.

보통학교는 정부에서 세운 관제학교, 즉 공립학교입니다. 식민지기 이전부터 선교사 또는 한국인 독지가 등이 사립학교를 설립해 운영해 오기도 했는데, 이러한 사립학교의 취학률은 큰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사립학교의 수가 의미있는 수준으로 많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5~14세 인구 대비 취학률은 국제비교가 가능합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1910년부터 1940년까지 한국, 일본, 대만, 브라질, 인도의 초등교육 취학률 추이를 보여줍니다. 아시아 평균과 세계 평균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이미 초등교육의 보편적 확산을 이룩한 뒤였습니다.

그래서 5~14세 초등 취학률이 60% 수준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세계 평균은 30%에서 40% 수준이었고, 아시아 평균은 1910년 10%대 중반 수준에서 1940년 30% 수준으로 증가합니다.

식민지 조선의 초등 취학률은 1910년대에는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당시 대만과 인도보다는 높았지만 브라질보다 낮았고, 아시아 평균보다도 낮았습니다. 그래프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아프리카의 식민지였던 모리셔스, 니아살랜드, 북로디지아와 남로디지아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식민지기 동안 조선, 즉 한국의 초등 취학률은 꾸준히 성장합니다. 하지만 1940년이 되어서야 아시아 평균과 브라질의 취학률을 따라잡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비교 대상은 대만입니다. 한국과 같이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만의 취학률은 1910년에는 오히려 한국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1940년대가 되면서 일본 수준을 기록합니다. 초등교육이 식민지기 말이면 대만에서는 거의 보편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대만은 함께 일본의 식민지였지만, 대만의 초등교육 확대가 조선보다 더 빨랐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만이 더 이른 시기에 식민지가 되었고, 인구 규모나 면적 등이 더 작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만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에 비해 식민지배에 더 협력적이고 저항이 작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선과 박기주의 연구는 교육재정 구조의 차이에 주목합니다. 식민지기 대만의 초등교육 재정은 각급 정부에서 분담하여 지원했고, 상급 정부의 지원은 재정을 충분히 확충하여 교육을 더 빠르게 확산시키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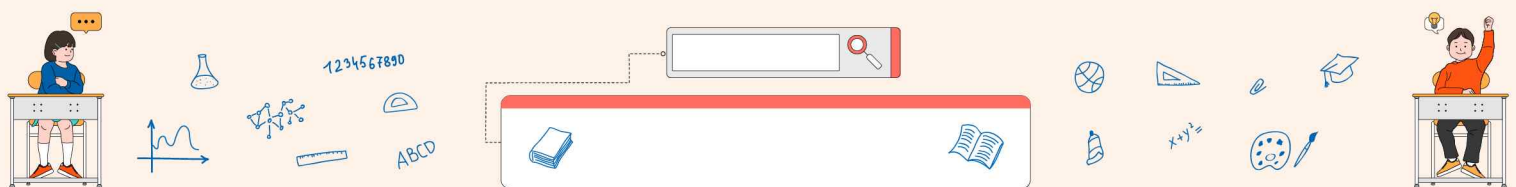
식민지기 조선의 초등교육, 즉 보통학교 재정은 대만보다 각 지역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학교 교육을 위한 세금을 부담하는 지주 세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고, 학교 교육이 보편적으로 확산되기보다는 지역 엘리트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식민지기에 초등교육의 확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취학률 증가 추이가 다른 국가들만큼 인상적이지 못했던 이유는 성별 격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에 가까운 수치를 계산하기 위해 이번 그래프에서는 식민지기 말의 국민학교 취학연령인 8세부터 13세까지의 인구 대비 초등학교 취학률을 계산해 봤습니다. 실제 8세부터 13세까지의 인구 규모는 알 수 없으므로 흔히 사용하는 대로 전체 인구의 14.3%로 가정하여 추계했습니다.

성별로 나누어 취학률을 계산해 보면, 남성 취학률 추이는 전체 취학률 추이와 동일하게 관측됩니다. 식민지기의 초등교육 확대는 남학생들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반면 여성 초등학교 취학률은 8세부터 13세 인구를 기준으로 1935년 이전까지는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성 취학률은 1930년대에 들어와서야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40년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30%를 넘어섭니다. 당시 남성 취학률은 70%에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식민지기 초등교육의 성립과 양적 성장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보통학교, 소학교, 국민학교로 이름이 바뀌면서 진행된 식민지기의 초등교육은 상당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민지기 초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남성 위주로 이루어졌고, 여성 교육의 확대는 1930년대가 지나고 나서야 점차 이루어졌습니다.

식민지기 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일본인과 조선인 교육이 서로 분리되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1938년 이후로 일본인과 조선인 학교 명칭 및 교육과정이 통합되기는 하지만, 분리교육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식민지 초등교육의 양적 성장은 특히 두 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3·1운동 이후인 1919년부터 1925년까지였습니다. 둘째는 1932년 이후였습니다. 식민지기 초등교육 성장의 또 다른 특징은 같은 일본 식민지였던 대만보다는 교육의 확대가 더뎠다는 점입니다.

대만은 식민지기 말이 되면 초등교육 취학률이 거의 일본 수준에 근접하게 됩니다. 식민지기 동안 초등교육이 보편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민지 조선에서도 초등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되기는 했지만, 식민지기가 끝날 때에도 취학률이 아직 일본이나 대만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식민지기에 초등교육이 양적으로 성장한 배경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

식민지기 초등교육의 성장 II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식민지기 동안 한국의 초등교육이 양적으로 성장한 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어서 식민지기 초등교육이 양적으로 성장한 추이가 어떠한 배경을 갖고 나타나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의 양적 확대는 두 가지 요인이 맞물려 이루어집니다. 바로 수요와 공급입니다. 학교를 많이 짓고 교육 기회가 제공되더라도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원치 않는다면 학교 교육이 확대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하더라도 학교와 교사가 충분히 공급되어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학교 교육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식민지기 초등교육의 양적 확대는 수요와 공급의 두 측면 모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학교 교육에 대한 수요는 늘 컸습니다. 식민지기 경제성장과 사회환경의 변화는 교육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상승하고, 학교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설립과 교사의 고용 등 학교 교육의 공급 확대가 식민지기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기의 초등교육기관인 보통학교는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두 수용할 수가 없어서 학교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보고 입학생을 선발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각 연도별로 보통학교 지원자 대비 입학생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일종의 보통학교 지원자 합격률입니다. 연도별로 변동이 있지만 높을 때도 90%보다 낮았고, 낮을 때에는 50%까지 낮았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경쟁이 적을 때에도 지원자 열 명 중 한 명은 탈락했고, 경쟁이 심할 때는 지원자 중 절반밖에 학교에서 수용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평균 합격률이고, 실제로는 지역 간 편차도 커서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합격률이 절반보다도 훨씬 낮은 경우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즉, 식민지기에 초등교육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았지만, 학교 공급의 확대는 그만큼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학교 공급이 충분히, 그리고 더 빨리 이루어졌다면 학교 교육의 확대 역시 더 빠른 시점에 이루어질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공급의 확대 추이는 어떠했을까요? 화면의 그래프는 5세부터 14세 인구 대비 보통학교의 수, 교사의 수, 학급 수를 보여줍니다.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 수량의 증가는 더 빨랐습니다.

5~14세 인구 10,000명당 보통학교 수는 1910년대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30년대 말까지 증가 추세가 꾸준히 이루어집니다. 즉 식민지기의 보통학교 설립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인구 증가보다 빠른 추이로 꾸준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식민지 정부는 초등학교 설립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3·1운동 이후 계속 펼쳐왔습니다. 1919년부터는 세 개의 면에 적어도 하나의 보통학교를 설립하는 3면 1교 정책이, 1929년부터는 모든 면에 적어도 하나의 보통학교를 설립하는 1면 1교 정책이 펼쳐집니다. 1940년 무렵 잠시 주춤했던 학교 설립 추이는 이후 다시 더 빠르게 증가하며 해방을 맞이합니다.

5-14세 인구 1,000명당 교사 수와 학급 수는 거의 비슷한 추이를 보여줍니다. 초등교육에서 교사 한 명이 한 개의 학급을 맡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학령인구 대비 교사 수 증가 추이는 취학을 증가 추이와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1919년부터 1925년까지 빠른 증가 추이가 나타나다가 이후 한동안 정체되었습니다. 그리고 1934년 정도부터 다시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식민지기 초등교육의 양적 확대는 이미 교육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에서 학교 공급의 증가가 주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교사의 채용이 중요해 보입니다. 교사가 빠르게 늘었을 때 취학률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급 측면의 주도적인 역할은 식민지기에 학교와 교사 공급 확대가 더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다면 초등교육의 보편적 확산도 더 빨라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식민지기의 초중등교육은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분리되어 실시되었습니다. 조선인 교육과 일본인 교육이 차등하게 이루어진 상황은 학생 1인당 학교 경비의 추이에도 나타납니다.



학교 경비를 학생 수로 나눈 값인 학생 1인당 학교 경비는 화면의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일본인 소학교의 경우 평균적으로 50원~60원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조선인, 즉 한국인이 다닌 보통학교의 학생 1인당 학교 경비는 이보다 낮은 30원 수준이었습니다. 1930년대에는 20원대 수준으로 더 하락합니다.

한국인 교육에는 일본인 교육에 소요되는 수준보다 더 적게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학교 시설에 대한 투자 수준의 차이에서 기인했을 수도 있고 교사 급여 수준이 달랐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학급 크기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1인당 학교 경비가 줄어드는 추이는 부분적으로 규모의 경제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경비가 학생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식민지기 초등교육의 비용은 누가 지불했을까요? 다음 그래프는 주요 수입원별로 보통학교 수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보통학교 재정의 주요 수입원은 지방세 수입인 지방비, 일종의 중앙정부인 조선총독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학생과 보호자가 납부하는 수업료, 기타 지역 유지와 독지가 등이 지불한 기부금이었습니다.

1919년 이전까지는 거의 대부분 정부 보조금으로 보통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식민지 정부가 본격적으로 초등교육을 확대시키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1919년부터는 지방비 수입의 규모와 비중이 커집니다.

학교를 세워야 하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세금을 거둬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해 학교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식은 공립 초등학교 교육이 태동하고 확산된 미국과 유럽 국가 등지에서 폭넓게 활용되었습니다.

일본도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 초등교육을 도입하고 확대할 때 이러한 미국식 모형을 활용했고, 식민지 조선에도 적용했던 것입니다. 지방비 일부는 이후 1920년대 말에 정부 보조금으로 전환됩니다. 이후 1930년대 중반까지는 정부 보조금 증가가 보통학교 재정수입 증가를 이끌다가 중반 이후부터는 다시 지방비 수입의 비중이 크게 늘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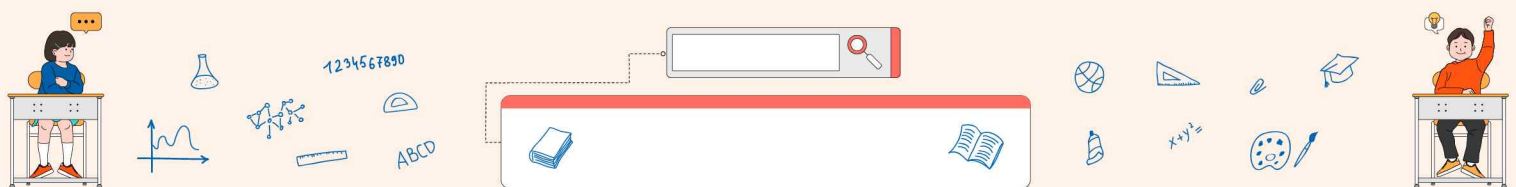


한편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수업료의 비중도 상당했습니다. 수업료의 규모는 초등교육이 확산되었던 1920년대와 1930년대 동안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수업료는 보통학교 재정수입의 약 2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실제 각 학생이 납부해야 하는 수업료 부담은 상당한 편이었고, 초등교육의 보편적인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기부금의 경우에는 학교 설립을 늘리는 데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1930년대 후반에 기부금의 규모와 비중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식민지기 초등교육의 확대 배경을 교육 수요, 공급 및 재정의 측면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식민지기에는 초등과정인 보통학교에서조차 입학 경쟁이 상당했고, 입학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높은 입학 경쟁률은 교육에 대한 수요가 이미 컸음을 반증합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이 실제 초등교육 확대 추이를 설명할 수 있는 주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취학을 증가 추이는 학령인구당 교사 증가 추이와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재정의 측면에서 조선인 보통학교에 대한 투자 수준은 일본인 소학교에 대한 투자 수준보다 더 낮았습니다. 보통학교 재정수입은 주로 정부 보조금과 지방세 수입이었는데, 학생 또는 보호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업료의 비중도 20%가량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방 이후 초등교육의 확산 과정과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3

대한민국의 초등교육 확산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식민지기 초등교육의 확대 배경을 교육 수요, 공급 및 재정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해방 이후 한국의 초등교육이 어떻게 보편적으로 확대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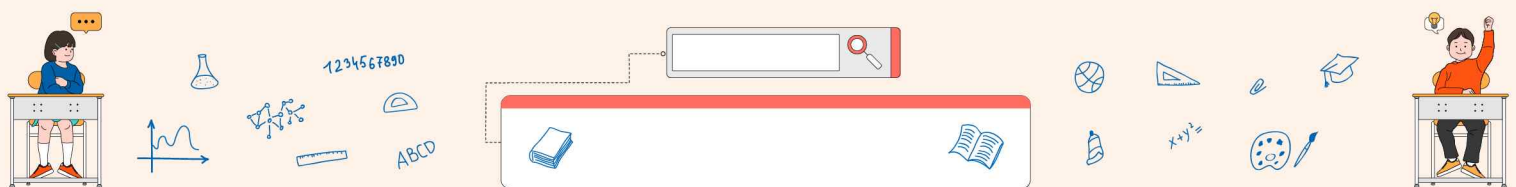
해방 후 미군정기에 초등교육은 전례 없는 양적 팽창을 경험합니다. 초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수립됩니다. 만 6세 아동들은 국민학교에 전원 수용하고, 만 7세부터 11세까지의 미취학 아동도 희망자들을 모두 수용한다는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또한 교원 수를 빠르게 늘리기 위해 임시교원양성소가 설치되고, 중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속성과도 운영됩니다. 기존 일본인 학교들은 한국인 학교로 전환되었고, 교실 증축 및 2부제 수업 실시도 이루어집니다.

1963년 문교통계요람에 따르면 1945년 8.15 해방 당시 국민학교 수는 2,884개였고, 교원은 19,729명, 학생은 약 1,366,000명이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시점이 되면 국민학교는 3,443개로 늘어납니다. 교원 수는 38,600여 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학생 수도 2,426,000여 명으로 백만 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취학률의 장기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확대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민지기에는 인구 자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5세부터 14세 인구를 기준으로 취학률을 계산하면 일관적인 장기 시계열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이 5세부터 14세 인구 대비 초등학교 취학생 수의 비율입니다. 해방 전후의 자료가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1940년대와 1950년대의 가능한 자료들을 모두 연결해 살펴보면 1935년 무렵부터 1960년 무렵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 초등교육의 보편적 확산은 식민지기 말부터 해방 후 1950년대까지 꾸준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5~14세 취학률은 1960년대부터 정체됩니다. 이 무렵부터는 취학연령인 6세부터 11세 인구를 기준으로 한 취학률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수치를 보면 이미 취학률이 거의 100%임을 알 수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는 3세부터 5세까지의 인구를 기준으로 유치원 취학률을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노란색으로 제시된 선이 바로 유치원 취학률입니다. 유치원 취학률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했습니다. 1970년대까지 유치원 교육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민지기의 초등교육 확대는 주로 남학생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1930년대 후반부터 여학생의 초등교육 취학률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성별 격차는 여전히 상당했습니다. 식민지기 통계를 보면 1942년 국민학교의 남학생 수는 1,219,156명이었고, 여학생 수는 533,434명이었습니다. 남학생 1인당 여학생 수는 약 0.44명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국민학교의 남학생 1인당 여학생 수는 약 0.65명이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초등학생의 성비가 상당히 개선되었고, 이는 해방 이후 여성의 초등학교 취학이 과거보다 더 많이 늘어났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0.65명이라는 수치가 말해주듯이 여전히 초등교육의 성별 격차는 남아있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초등학교의 남학생 1인당 여학생 수 추이를 보여줍니다. 이론적으로 학령인구의 성비가 균등하고, 초등교육에서 성별 격차가 사라졌다면 이 수치는 1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학령인구 중 남학생이 비율이 다소 높았습니다. 6세부터 11세까지의 인구 중 남학생 1인당 여학생 비율은 낮을 때에는 약 0.87, 높을 때는 약 0.93의 수준에서 변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남학생 1인당 여학생 수가 0.9를 넘어서는 1970년 무렵부터 초등교육의 성별 격차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초등교육의 성별 격차가 꾸준히 감소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남학생의 초등학교 취학률이 높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950년~1960년대의 초등교육 확대는 여성 초등교육의 확대 과정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남학생 1인당 여학생 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초등교육과는 무관하고, 당시 취학연령 인구의 성비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초등교육의 확대는 학교와 교원 공급의 증대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웠습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1950년대까지의 학교 설립 및 교원 규모 증대 추이는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방 이후로 학교 수와 교원 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1960년부터 초등교육은 보편화되었지만, 학교와 교원 공급의 증대는 계속되었습니다. 학령인구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의 여건을 개선할 필요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보면 1960년부터 1990년대까지 학령인구 대비 초등학교 수와 초등교원의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학령인구가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는 1980년 전후입니다. 2000년대부터는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였습니다. 이 시기 학령인구 1,000명당 학교 및 교원 수의 급격한 증가는 학령인구의 감소에서 기인하였습니다.

교원 공급 증가에 따른 교육 여건의 개선은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민지기 초등교육이 급격히 확대된 시기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80명을 넘어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직후 70명 이상이었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이후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4명 수준입니다. 초등학교에는 담임교사 이외에도 교과전담 교사 등 다양한 교사가 있으므로 실제 학급 크기는 이보다는 조금 더 크겠습니다.

초등교육의 팽창기에서 학교 건물과 교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한 가지는 2부제 이상 수업의 실시였습니다. 2부제 수업은 하나의 교실을 두 개의 학급이 시간을 나누어 교대로 사용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종종 필요에 따라 3부제 또는 4부제 수업이 실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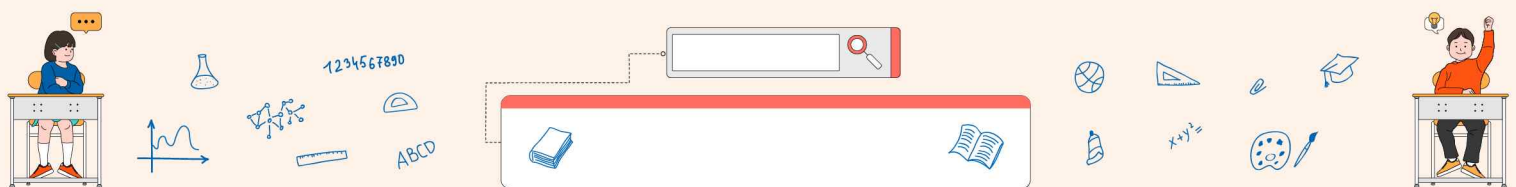
화면의 그래프는 2부제 수업을 실시하는 초등학교 수 추이를 보여줍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이 통계는 1970년대까지 2부제 수업이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아직 학령인구는 증가하던 시기였으므로 2부제 수업의 감소는 학교와 교사의 공급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초등교육이 확대되던 시기에 학생 수가 적은 지역에는 새로운 학교를 설치하는 대신 인근 학교의 분교를 설치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까지 초등학교 분교의 수는 800여 개를 상회하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오히려 분교의 수가 증가했는데, 도시화 등으로 인해 농어촌과 산림 지역의 학생 수가 감소하며 기존의 정식 학교들도 분교로 전환되는 경우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이동 등으로 인해 이러한 지역의 학생 수가 더욱 감소하고 소멸하면서 분교의 수 역시 꾸준히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방 이후 한국에서 초등교육이 보편적으로 확대된 과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초등교육의 확대에는 학교와 교사 공급 증대가 계속 중요했습니다. 1960년 무렵이 되면 보편적인 수준으로 초등교육이 확대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특히 학령기 여성의 취학 증가가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남성들의 초등학교 취학은 이미 식민지기에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취학률이 충분히 상승한 이후에도 학령인구 대비 초등학교와 초등교원 수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초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인 투자 속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꾸준히 줄어드는 등 교육 여건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초등교육이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과는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

한국 초등교육의 특징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해방 이후 한국에서 초등교육이 보편적으로 확대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 초등교육이 현재까지 발전해 오면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또한 역사적으로 어떠한 특징들을 지니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초등교육의 특징 중 한 가지는 여성 교원의 비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2021년의 통계를 보면 초등학교 교사 중 77%가 여성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1960년 무렵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교사 중 여성의 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성 교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합니다. 1990년에 초등교사 중 여성 비율은 50%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7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종종 남자 교사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교사는 주로 교육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교육대학교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는 특정 성별 인원이 정원의 일정 비율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상 남학생들을 일정 비율로 선발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의 남자들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군대에서 복무해야 하는데 1970년~1980년대에는 교육대학의 남학생들이 졸업 후 일정 기간 교사로 근무하면 현역 복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한편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사가 거의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한국 초등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낮은 사립학교 비율입니다. 한국의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은 사립 학교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사립학교를 정규 학교 교육 체계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사립 초등학교는 73개교로, 전체 6천 157개의 약 1.2%에 불과합니다.

한국 초등교육의 보편적 확대는 공립 초등학교를 세우며 이루어졌습니다. 19세기에 처음 세워진 신식 학교들은 사립학교였지만, 이후 공립 초등학교가 늘어나면서 사립학교의 비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사립학교 중 일부는 개신교단에서 설립한 종교사학이었고, 이외에 가톨릭, 불교 등에서도 사립학교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립초등학교가 종교사학인 것은 아닙니다. 사립 초등학교의 비율이 낮고, 그중에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설립한 학교도 일부이기 때문에, 한국 초등교육의 보편적 확산 과정에서 해외 선교사와 개신교단이 수행한 역할은 별로 주목받지 않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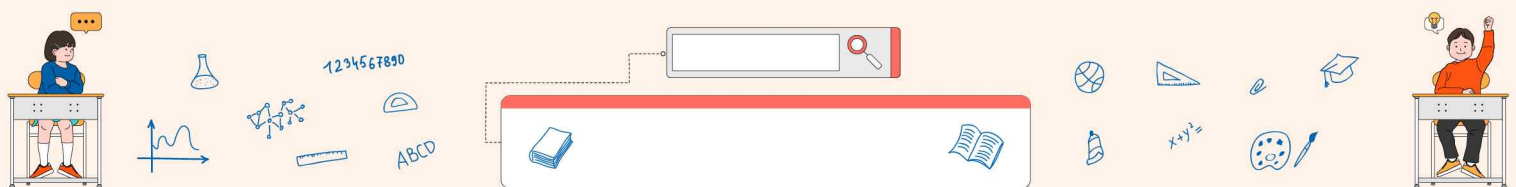
한국의 사립 초등학교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학금, 수업료, 특별교육 과정 교육비, 통학버스비 등 제반 비용을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징수합니다. 전반적인 학비 부담은 큰 편입니다. 사립초등학교는 신입생들을 지원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별도로 선발합니다.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모두 중학교로 진학합니다. 중학교 교육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입니다. 1965년까지만 하더라도 남학생들은 졸업생 중 60%, 여학생들은 졸업생 중 47%만 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국민학교 졸업 후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들은 집에 머무르며 부모의 일을 돕거나 무직 상태로 지낼 수도 있었고, 서울 등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국민학교 졸업 후 지방에서 서울 등으로 상경하여 봉제공장에서 일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잘 사는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초등교육은 기본적인 문해 및 수리능력을 갖춘 인력을 배출해 내는 기능을 담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식민지기였던 1930년 국세조사, 즉 오늘날의 인구총조사에서는 성인 인구의 문자 해독 능력을 조사했습니다.

식민지기의 특성상 한글 문자 해독 능력과 일본어 문자 해독 능력을 모두 조사했는데, 한국인의 경우 한글과 일본어 모두 읽고 쓸 수 있거나 한글만 읽고 쓸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한글은 모르지만, 일본어만을 읽고 쓸 수 있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표에 나온 문해율은 한글 문해율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1930년의 문해율은 24.6%로 남학생이 38.2%로 다소 높았고 여성은 10.2%에 불과했습니다. 1930년 이전까지 초등교육이 아직 충분히 확산되지 않았고, 특히 여성들의 교육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점과 일치하는 통계입니다. 그 후 1955년에 다시 인구총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문자 해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전체 문해율은 77.7%로 나타납니다. 남성 성인 문해율이 87.8%로 더 높았고, 여성의 문해율도 67.9%였습니다.

이러한 문해율의 빠른 증가는 초등교육의 보편적 확산의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초등교육 확산에 있어서 성별 격차가 나타났던 것과 같이 성인 문해율의 증가 추이에서도 성별 격차가 비슷하게 관찰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초등교육의 특징들과 성과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한국은 다른 여러 국가들과 유사하게 교직의 여성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교사의 경우에는 현재 전체 인원의 77%가 여성입니다.

한국 초등학교의 또 다른 특징은 사립학교의 비율이 작다는 점입니다. 현재 전체 초등학교 중 1.2% 정도만이 사립학교입니다. 사립 중등학교와 달리 사립 초등학교는 자체적으로 지원자 중 추천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상당한 수준의 수업료 등 비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초등학교 졸업생들은 모두 의무교육인 중학교로 진학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한국 초등교육의 보편적 확산은 문해율의 획기적인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육 및 유아교육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

보육 및 유아교육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한국 초등교육의 특징들과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육 및 유아교육의 진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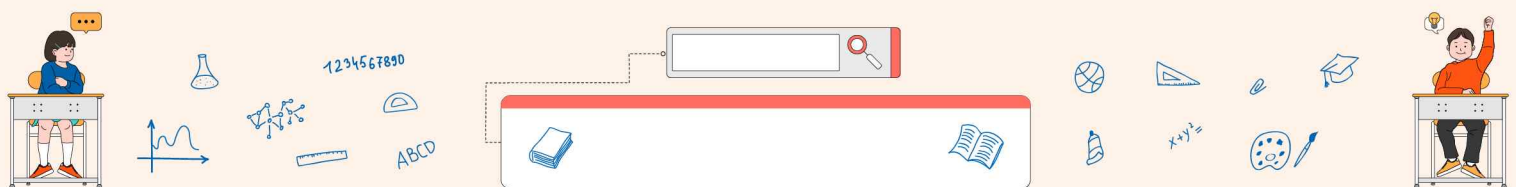
보육과 유아교육은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서 분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보육 서비스와 유아교육이 어떻게 현재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는지 살펴보입니다. 또한 보육 및 유아교육 제도는 여성들의 노동 공급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보육과 유아교육 제도의 정비와 발전이 여성 노동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1909년 함경북도에 나남유치원이 설치되면서 한국 유치원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지만 1970년대까지 유치원 교육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3세부터 5세까지의 인구 대비 유치원 학생 비율이 10%를 넘어선 것은 1984년부터였습니다. 1980년대부터 유치원 교육은 꾸준히 성장했고, 2021년에는 유치원 취학률이 50%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유치원 교육은 사립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1965년에 423개의 유치원이 있었는데 단 4개를 제외한 419개가 사립유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1976년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 설치되기 시작하고, 1980년대 이후로 정부가 유아교육의 성장을 주도하면서 공립유치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총 8,660개의 유치원이 있었는데 그중 절반이 넘는 5천여 개가 공립유치원이었습니다.

유치원 취학률이 초등교육과 달리 아직 5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유치원 대신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은 대표적인 보육기관으로 과거 탁아소라고 불렸던 적도 있고, 새마을유아원으로 불렸던 적도 있습니다.

1990년 보육시설 설치기준이 완화되면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이 크게 증가합니다. 1991년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시설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영유아 자녀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만, 의무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대신 사설 학원으로 운영 되는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을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1999년부터 2021년까지 어린이집과 보육 아동의 추이를 보육통계 자료를 이용해 보여줍니다. 1990년대부터 2010년 무렵까지 어린이집을 통한 보육은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수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 아동의 수가 함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초반을 지난 뒤부터 어린이집과 보육 아동의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출생률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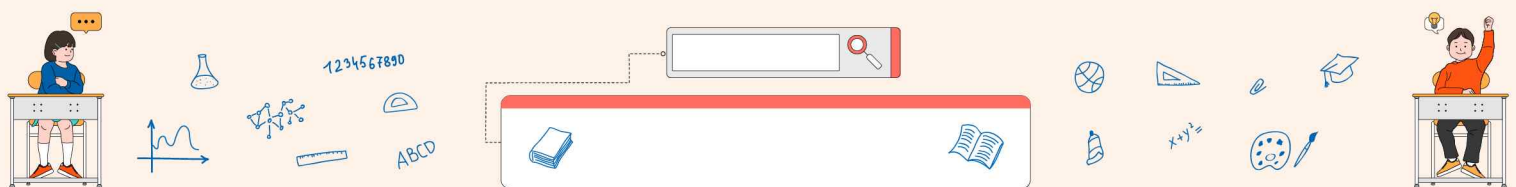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을 통한 보육의 확대 배경에는 자녀출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감소 또는 경력복귀 증가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1992년부터 저소득층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1999년부터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의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보육료가 지원되었고, 2002년에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소득 기준을 완화하며 지원대상이 확대되었고, 2013년부터는 소득 구분 없이 모든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맞벌이, 다자녀가구 등은 차등하여 일반적인 맞춤보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료가 지원되지만,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없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 가정에서 양육하는 대신 어린이집에 보내고, 어린이집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에서는 이용이 더 힘들어지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이 2009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만 3세부터 5세 아동에게는 유아 표준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지원됩니다. 누리과정에 따른 유아교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모두 가능하고,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에서 각 시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보육 및 유아교육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출산 및 육아 때문에 여성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줄어들면서 한국에서는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통한 보육과 유치원 교육이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가정양육, 시설보육, 유치원 교육에 대해 모두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 표준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만들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교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유치원과 보육기관의 통합을 추진중입니다. 같은 연령의 유아에 대해 보육기관과 유치원이 각각 보육과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둘 사이의 벽을 허물면서 장점을 살리기 위한 시도입니다. 보육기관들을 다양한 형태의 유치원으로 바꾸어 통합하자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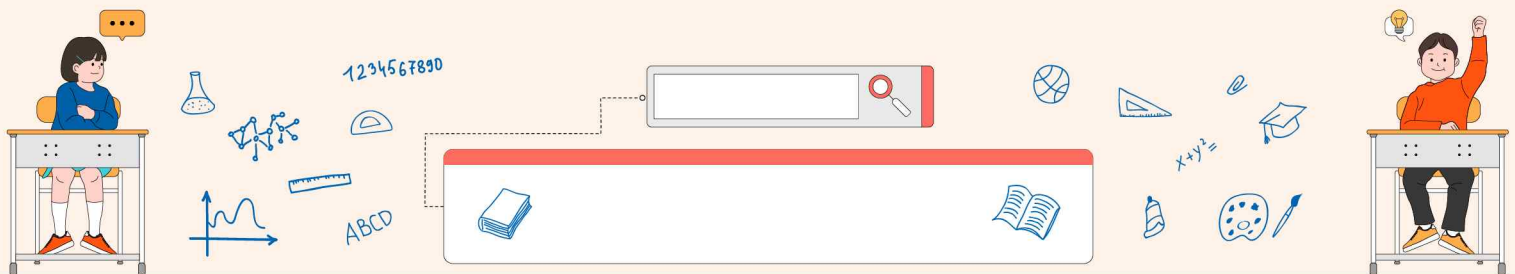
이상으로 <한국경제와 학교 교육> 세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어떻게 역사적으로 확대되었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 현재의 제도와 모습이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강의에서는 한국의 중등교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EK

3

Early Childhood and Primary Education

3-1

Growth of Elementary Educ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1

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Korean Economy and School Education." My name is Go Sun. In this section, I will examin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elementary education in Korea. In the last section, I looked at how the school education system in Korea has evolved to its present throughout Korean history. In this third-week section, I will focus on early childhood and elementary education in Korea. To be specific, I will examine the universal expansion and the subsequent problems. First, I will tell you about elementary education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Prior to the Japanese colonial era, Korea had a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system through grade and middle schools. However, it has not yet made any significant progress in terms of the number of schools or students. As I explained in the previous sections, during the era, these educational systems were organized. Elementary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Korean students were renamed general schools. The name of secondary educational institutions was also named advanced general schools.

At that time, there were still grade schools, middle schools, and advanced schools for girls, but these schools were for Japanese living in Korea. The education for the Japanese was done as in Japan even in the colonies.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in Korea did not initially educate Koreans in the same way as the Japanese.



The photo is a class scene at a government elementary school in 1910. The number of students sitting in the classroom seems to be about 30 to 40. All of the students appear to be boys, some with their hair braided in the traditional way, some with a newer shortcut.

Two teachers stood in front of the blackboard. The teacher wearing the traditional white Korean dress appears to be a Korean teacher. The content written on the blackboard is also Korean. It seems that he is teaching the contents related to Hangul (Korean alphabet) reading. The person wearing a suit and standing next to the Korean teacher seems to be a Japanese teacher.

General schools taught Korean as well as Japanese. Classical Chinese education was also provided. Morality, ideology, and national views were also taught through the subject of moral education. Practical art classes such as sewing, handicraft, agriculture, and commerce were also provided. The photo shows a practical art class at a general school in the late 1910s.

As elementary education gradually expanded, the period of education in general schools was extended to six years, and the contents of classes started being unified with those of grade schools for the Japanese. After the third Korean Education Ordinance in 1938, the contents of education in Korean schools and Japanese schools became the same except for the Korean language subject. Korean school teachers and Japanese school teachers were educated together, even though they were trained separately in the past.

From then on, the Korean language subject became an elective subject and may not be taught at the discretion of the Principle. With the proclamation of the primary school ordinance in 1941, the Korean language subject disappea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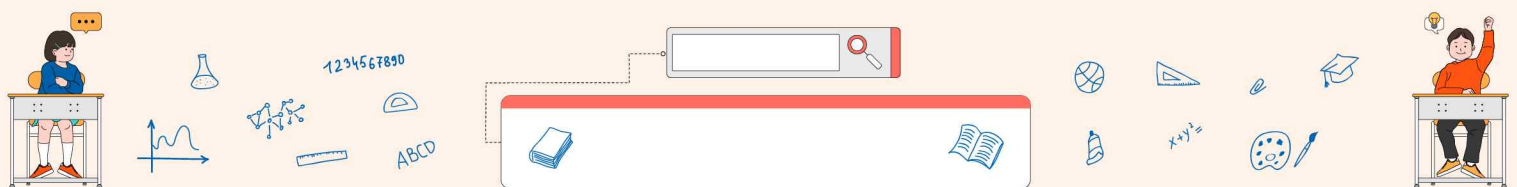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Seodang, an educational institution that had been handed down since before modern times, remained in operation eve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Seodang had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with general schools, which are regular elementary education institutions, rather than competition. In other words, students gradually attended general schools as well as Seodang after school.

According to the statistics collect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re were 16,540 Seodang throughout Korea in 1911. The number of Seodang increased to 25,482 in 1920. However, the number steadily declined thereafter, leaving only 2,679 in 1943.

Seodang was often perceived as a pre-modern and outdated education and was compared to new education. The photo is a picture postcard produced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On the upper right is a class scene of a traditional Seodang, and on the lower left is a class scene of a new general school. Perhaps, the postcard wanted to tell that educational progress was being made in colonial education through the contrast between Seodang and general schools.

The process of quantitative growth of elementary education during the colonial era is well represented by the trend in the general school enrollment rate. The enrollment rate is the ratio of the number of enrolled students to the school-aged population. However, it is not easy to calculate the enrollment rate during the colonial era. First of all, there are not enough population statistics. During the colonial era, the national census, or population census, was conducted every five years. However, it is now difficult to find specific reports on the census. The printed reports only present the population by age group divided into five-year-old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exact population. In this regard,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accurate enrollment rate.



Second, there is the problem of change in school ag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period of education in general schools was initially four years, but it was later extended to six years. In the early days, when the school system during the colonial era was introduced and spread, the school-age was also unclear. These problems are common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other countries in the formative period of elementary school education.

Therefore, much research literature calculates the ratio of students to the population between the ages of 5 and 14, instead of calculating the enrollment rate to the school-age ratio. This calculation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use demographics presented in units of five years without any processing. It can also consistently compare the enrollment rate across times, regions, and countries. It has the disadvantage that the enrollment rate itself comes out low because the population between the ages of 5 and 14 is more extensive than the average elementary school-age population. Therefore, a slightly different value or trend from the actual enrollment rate may be observed depending on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by age.

This graph shows the enrollment rate compared to the population between the ages of 5 and 14, calculated using demographics and administrative statistics from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he population in the years, when the national census was not conducted, was estimated as a log-linear trend. The blue line shows the average school enrollment rate. After Korea became a Japanese colony in 1910, the average school enrollment rate increased somewhat slowly, but then experienced two rapid growth periods.



The first period of rapid growth was from 1919 to around 1925. After the March First Movement in 1919, as Japanese colonial rule policy changed, its school education policy was also revised. For this reason, there was an expansion of primary education. After that, the enrollment rate, which had been stagnant for a while, increased rapidly again from around 1932. This increasing trend continued until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yellow line indicates the ratio of students attending Seodang to the population between the ages of 5 and 14. This is a kind of Seodang enrollment rate. Until the 1910s, the enrollment rate in Seodang was higher than that of general schools. It may be estimated that Koreans at that time preferred Seodang to general schools.

Otherwise, It may be expected that the enrollment rate could have been high because there were not enough general schools even though Koreans preferred them. To be specific, the supply of general schools was not sufficient, so the enrollment rate in Seodang was high. The enrollment rate in Seodang, which increased somewhat in the 1910s, decreased in the 1920s.

General schools are government schools, that is, public schools. Even before the Japanese colonial era, missionaries or Korean philanthropists established and operated private schools. The enrollment rate of these private schools was so insignificant. This is because the number of private schools was not significantly high.

The school enrollment rate compared to the population aged 5 to 14 can be compared internationally. This graph shows the transition of primary education enrollment rates in Korea, Japan, Taiwan, Brazil, and India between 1910 and 1940. The graph presents Asian and global averages. At that time, Japan had already achieved universal distribution of elementary education.



That is why the elementary school enrollment rate for those aged 5 to 14 continues to appear at 60%. The global average was between 30% and 40%. The Asian average rises from the mid-10% in 1910 to around 30% in 1940.

The elementary school enrollment rate in Korea during the colonial era was less than 10% in the 1910s. This was higher than Taiwan and India at the time, but lower than Brazil and the Asian average. Although not shown in the graph, this was lower than the African colonies of Mauritius, Nyasaland, and Northern and Southern Rhodesia.

During the colonial era, the primary school enrollment rate in Joseon or Korea grew steadily. But in 1940, that enrollment rate caught up with the Asian average and that of Brazil. Taiwan is an interesting comparison. Taiwan, which was a Japanese colony like Korea, had a lower enrollment rate than Korea in 1910. However, after that, it grew at a faster rate and reached the Japanese level in the 1940s. This means that primary education expanded almost universally in Taiwan by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rule.

There are various opinions on why Taiwan's expansion of elementary education was faster than that of Joseon. Some say that this is because Taiwan was colonized earlier, and its population size and area were smaller than those of Joseon. Others explain that Taiwanese people were more cooperative and less resistant to Japanese colonial rule than Koreans.

Go Sun and Park Ki Joo pay attention to the difference in educational financial structure. During the colonial era, Taiwan's primary education finances were divided and supported by each level of government. Higher level government support has greatly helped expand these finances and spread education faster.



Primary school finance in colonial Joseon was more dependent on each region than that of Taiwan. Further, each region was greatly influenced by landlords who were responsible for paying taxes for school education. In this regard, in colonial Joseon, school education tended to be centered on local elites rather than spreading universally.

The gender gap is also the reason why enrollment growth has not been as impressive as in other countries, despite the expansion of primary education during the colonial era.

To calculate more accurate figures, this graph calculated the primary school enrollment rate compared to the population between the ages of 8 and 13, the primary school age at the end of the era. The actual size of the population between the ages of 8 and 13 is unknown, so it was estimated, assuming 14.3% of the total population, as is commonly used.

If the enrollment rate is calculated by dividing it by gender, the male enrollment rate trend is observed to be the same as the overall enrollment rate trend. This means that the expansion of primary education during the era was mainly done for male students. On the other hand, the female primary school enrollment rate was less than 10% of the population aged from 8 to 13 before 1935.

The female school enrollment rate began to increase in the 1930s. And it wasn't until the 1940s that the rate surpassed 30%. At the time, the male primary school enrollment rate was close to 70%.



So far, I have looked at the establishment of primary education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the process of quantitative growth. Primary education during the colonial era, which was carried out as the names were changed to general, grade, and primary schools, achieved considerable quantitative growth. However, this quantitative growth was mainly made for male students. Primary education for female students gradually expanded after the 1930s.

Another characteristic of colonial education was that education between the Japanese and Koreans was separated from each other. Even though the name and curriculum of Japanese and Korean schools were unified after 1938, separate education continued.

The quantitative growth of primary education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was especially noticeable in two periods. The first was from 1919 to 1925,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The second was after 1932. Another characteristic of the growth is that the expansion of primary education in Korea was slower than in Taiwan, which was also a Japanese colony.

By the end of the colonial era, Taiwan's primary school enrollment rate was close to that of Japan. This means that primary education in Taiwan was universally expanded during the era. Even in Korea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elementary education was expanded quantitatively. However, even at the end of the colonial era, the enrollment rate had not yet reached that of Japan or Taiwan. Next time, I will discuss the background of the quantitative growth of primary educ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3-2

Growth of Elementary Educ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II

Hello, everyone! Last time, I examined the quantitative growth of primary education in Ko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This time, I will look at why primary education in Ko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grew quantitatively.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school education is achieved by two factors. It's just supply and demand. Even if we build a lot of schools and provide educational opportunities, school education won't expand if students don't want to go to school. Also, no matter how many students want to go to school,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school education cannot be achieved unless schools and teachers are sufficiently supplied to accommodate many students.

During the colonial era, both demand and supply for primary educatio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leading its quantitative expansion. Demand for school education has always been great. Economic growth and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during the colonial era increased the rate of return on investment in education. This led to an increase in demand for school education.

However, the expansion of the supply of school education,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schools and the employment of teachers, was not actively carried out in the early colonial era. So, general schools, which were elementary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he colonial era, could not accommodate all students. For this reason, they took an exam and selected students in a way determined by the school principal.



This graph shows the ratio of enrolled students compared to applicants to general schools for each year. This is a kind of acceptance rate for general school applicants. Even though the rate fluctuated from year to year, the rate was lower than 90% when it was high and it was as low as 50% when it was low. Even when the competition was low, one out of ten applicants was rejected. When the competition was high, only half of the applicants were accepted. This is an average acceptance rate. Variation in general school acceptance rates is wide across regions, with some regions having acceptance rates well below half. In other words, although the demand for primary education was very high during the colonial era, the expansion of school supply was not sufficient. Suppose the supply of schools had been more sufficient and faster. In that case, the expansion of school education could have been done earlier.

Then, what was the trend of expansion of school supply? The graph on the screen shows the number of general schools, the number of teachers, and the number of classes per population aged 5 to 14. The actual increase in quantity was faster because it was a time of population growth.

The number of general schools per 10,000 people aged 5 to 14 began to increase in the late 1910s. And the trend of increase continued until the end of the 1930s. In other words, it can be seen that general schools during the colonial era were established at a faster rate than population growth in the 1920s and 1930s.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has continued to expand primary schools since the March 1st Movement. In 1919, a policy was implemented to establish at least one general school in each of the three townships. In 1929, another policy was carried out to establish one general school in each township. The trend of establishing schools, which slowed down for a while around 1940, increased again and Korea became liberated.



The number of teachers and classes per 1,000 people aged 5-14 show similar trends. It seems that in elementary education, one teacher was in charge of one clas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teachers compared to the school-age population appears similar to the increase in the enrollment rate. This trend showed a rapid increase from 1919 to 1925, then stagnated for a while. And from around 1934, this trend started to increase rapidly again.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primary education during the colonial era seems to have been driven by an increase in the supply of schools at a time when demand for that education was already high. Among them, the recruitment of teachers seems to have worked as an important factor. This is because when the number of teachers increased rapidly, the enrollment rate also increased.

On the supply side, if the expansion of the supply of schools and teachers had occurred more quickly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 universal spread of primary education would have been faster.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during the colonial era was conducted separately between Koreans and Japanese. The educational inequality between Koreans and Japanese is also reflected in the trend of school costs per student. School cost per student is the school cost divided by the number of students. The graph on the screen shows that the school cost per student is an average of 50 to 60 won for Japanese grade schools. The school cost per student at the general schools attended by Koreans was about 30 won, which was lower than that of the Japanese. In the 1930s, it fell further to the level of 20 won.

Investment in Korean education is less than that required for Japanese education. This may have been due to differences in the level of investment in school facilities or to different levels of teacher salaries. This may have been due to differences in class sizes.



The trend for school cost per student to decrease as the number of students increases can partly be understood as economies of scale. This is because the school cost do not increase in the proportion to the number of students.

So, who paid for primary education in the colonial era? The following graph shows how primary school income has changed by a major source of income. The main sources of income for general schools were local taxes, subsidies from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uition fees paid by students, and donations from local worthies and benefactors.

Prior to 1919, general schools were established and operated almost entirely with government subsidies. From 1919, when the colonial government began to implement a policy to expand primary education in earnest, the size and proportion of local tax revenue increased. There is an education management system that collects taxes on its own in areas where schools need to be built and uses them to establish and operate schools. This system has been widely used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countries where public elementary education was born and spread.

Japan also used this American education model when introducing and expanding modern elementary education after the Meiji Restoration, and applied it to colonial Joseon. Some of the local tax revenue was later replaced by government subsidies in the late 1920s. By the mid-1930s, increased government subsidies led to increases in general school revenues. From the mid-1930s, the share of local tax revenue increased significantly ag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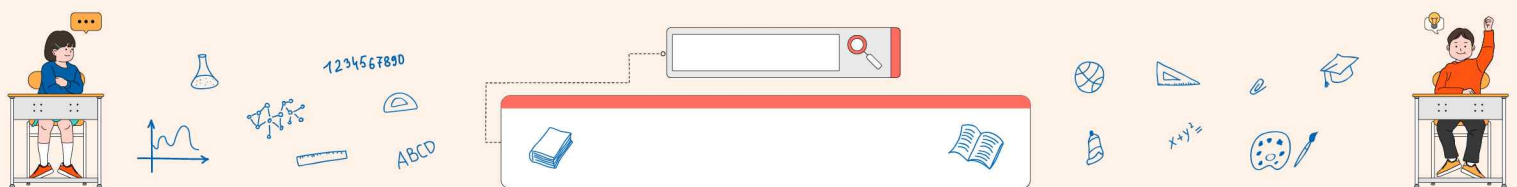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The share of tuition fees paid by students or guardians was also significant. The size of tuition steadily increased during the 1920s and 1930s, when primary education expanded. Tuition fees accounted for about 20% of the average financial income for general schools. The burden of tuition fees that each student had to pay was considerable. This has also acted as a factor hindering the universal expansion of primary education.



Donations have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establishment of schools. Particularly in the late 1930s, the size and proportion of donations increased considerably.

So far, I have summarized the background of the expansion of primary education in the colonial era in terms of education demand, supply, and finance. During the colonial era, competition for admission to general schools was fierce, and students were selected through entrance exams. The high competition for admission proves that the demand for education was high. Therefore, the supply for primary education was the main factor that could explain the expansion of primary education. The increase in the enrollment rate is similar to the increase in teachers per school-age population.

In terms of finance, the level of investment in general schools for Korean students was lower than that in grade schools for Japanese students. The financial income for general schools was mainly government subsidy and local tax revenue, but the share of tuition fees that students or guardians had to pay also reached about 20%. Next time, I will examine the process and background of the spread of elementary education after liberation. Thank you.



3-3

Expansion of Elementary Education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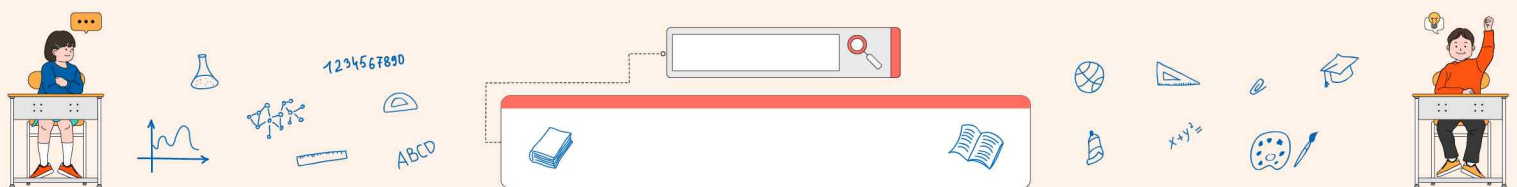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Hello, everyone! Last time, I looked at the background of the expansion of primary education in the colonial era in terms of demand, supply and finance. This time, I will examine how universal primary education in Korea has expanded since the liberation.

After the liberation, primary education experienced an unprecedented quantitative expansion during the US military rule. A plan was drawn up to make primary education compulsory. This plan set the goal of accommodating to primary schools all six-year-old children and the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7 and 11 who did not attend school if they wished.

To rapidly increase the number of teachers, a temporary teacher training center was established, and an intensive teacher training course for middle school graduates was also operated. The existing schools for Japanese students were converted into schools for Koreans, and classrooms were expanded, and double-shift classes were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1963 Annual Survey of Education, at the time of the liberation on August 15, 1945, there were 2,884 primary schools, with 19,729 teachers and 1,366,000 students. When the government was established in 1948, the number of primary schools increased to 3,443. The number of teachers nearly doubled to 38,600. The number of students increased by more than one million to about 2,426,000.

Looking at long-term trends in enrollment rates helps us understand the process of expanding primary schools. As I said in the previous section, population data needed to be improv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So we need to create a consistent long-term series by calculating the primary school enrollment rate based on the population aged from 5 to 14.



The blue line in this graph shows the ratio of the number of students in primary school compared to the population aged 5 to 14. There was indeed a lack of data before and after the liberation. However, If we look at all available data between the 1940s and 1950s, we can find a steadily increasing trend from about 1935 to about 1960. In other words, the universal spread of primary education in Korea took place steadily from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to the 1950s after liberation.

The primary school enrollment rate for students aged 5 to 14 has stagnated since the 1960s. From this period, we can calculate the enrollment rate based on the population aged 6 to 11, which is the primary school age. Looking at these figures, it can be seen that the enrollment rate is already close to 100%.

Beginning in the 1960s, we can also calculate the kindergarten enrollment rate based on the population aged 3 to 5. The yellow line in the graph is the kindergarten enrollment rate. The Kindergarten enrollment rate has risen in earnest since the 1980s. Until the 1970s, kindergarten education was limited.

The expansion of primary educ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was mainly conducted for male students. Although the primary school enrollment rate for female students increased from the late 1930s, the gender gap remained significant. According to the statistics mad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in 1942, the number of male students in primary schools was 1,219,156, and the number of female students was 533,434. The number of female students per male student was approximately 0.44.

In 1953, when the Korean War ended, the number of female students per male student in primary schools was about 0.65. The gender ratio of primary school students has improved considerably over the past ten years. This shows that the primary school enrollment rate for female students has increased more than in the past since the liberation. However, with the figure of 0.65, the gender gap in primary education remained.



The graph on the screen shows the change in the number of female students per male student in primary school. Theoretically, if the sex ratio of the school-age population is equal and the gender gap in primary education disappears, this number should be 1.

In fact, the proportion of male students among the school-age population was rather high. Among the population aged 6 to 11, the ratio of female students per male student was about 0.87 when it was low and 0.93 when it was high.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 gender gap in primary education disappeared around 1970, when the number of female students per male student exceeded 0.9.

You can see that the gender gap in primary education steadily decreased in the 1950s and 1960s. Considering that the primary school enrollment rate of male students was already high, the expansion of primary education in the 1950s and 1960s can be seen as a process of expanding primary education for female students. In the graph, the decline in the number of female students per male student since the mid-1990s is not related to primary education. It just reflects changes in the sex ratio of the school-age population at that time.

The expansion of primary education was difficult to achieve without the support of increasing the supply of schools and teachers. Due to a lack of data, it is not easy to grasp the trend of school establishment an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teachers until the 1950s. However, as mentioned earlier, the number of schools and teachers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liberation. I believe this trend has continued since then.

Although primary education became universal from 1960, the supply of schools and teachers grew. This is because there was a need to improve the conditions for school education, with an increasing school-age population. The graph on the screen shows that the number of primary schools and the number of their teachers compared to the school-age population increased steadily from the 1960s to the 1990s.



It was around 1980 that the school-age population in Korea peaked. Since the 2000s, the school-age population has declined rapidly. During this period,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schools and teachers per 1,000 students was caused by the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The improvement in educational conditions resulting from an increase in the supply of teachers can also be seen in changes in the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During the period of rapid expansion of primary education during the colonial era, the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exceeded 80. However, the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which was over 70 immediately after the liberation, has steadily declined since then.

Currently, there are 14 students per elementary school teacher. In elementary schools, there are various teachers such as specific subject teachers and homeroom teachers, so the actual class size will be slightly larger than this.

In the period of expansion of primary education, one of the ways to overcome the shortage of school buildings and teachers was the implementation of the double-shift class system. The double-shift class system is a way where two classes divide the time and alternately use one classroom. If necessary, triple-shift or quadruple-shift classes were conducted.

The graph on the screen shows the trend in the number of primary schools offering double-shift classes. The statistics, which began in the mid-1960s, show a sharp decline in the double-shift class system until the 1970s. During this period, the school-age population was still growing. So, the decline in the double-shift class system can be seen as a result of the increased supply of schools and teachers.



During the expansion period of primary schools, many branch schools of nearby schools were installed instead of establishing new schools in areas with a small number of students. By the 1960s and 1970s, the number of elementary branch schools exceeded 800. In the 1980s, the number of branch schools increased. This is because the number of students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nd forest areas has decreased due to urbanization and the existing formal schools have been converted into branch schools. Since the 1990s, the number of students in these areas has decreased and disappeared due to demographic changes and population movement. Therefore, the number of branch schools has also steadily decreased.

So far, I have summarized the process of universal expansion of elementary education in Korea after the liberation. Increasing the supply of schools and teachers continued to be an important factor in the expansion of primary education. Around 1960, primary education was expanded to a universal level. During this process, the primary school enrollment rate for female students was an important factor. This is because the primary school enrollment rate for male students had already increased considerabl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Even after the enrollment rate rose sufficiently, the number of schools and teachers continued to increase compared to the school-age population. This means that the government's investment in primary education has continued. With continued investment, education conditions have improved considerably, with the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steadily decreasing. Next time, I will look at the characteristics of elementary education in Korea and its achievements. Thank you.



3-4

Characteristics of Elementary Education in Korea

Hello, everyone! Last time, I looked at the process of universal expansion of elementary education in Korea after the liberation. This time, I will discuss the achievements of elementary education in Korea as it has developed so far. And I will examine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elementary education in Korea is the high proportion of female teachers. According to the statistics for 2021, 77%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were women. The proportion of female teachers was not high from the beginning. In the 1960s, only about 20%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were women.

Since then, however, the proportion of female teachers has steadily increased. In 1990, the proportion of women among primary school teachers exceeded 50%. And since 2004, it has exceeded 70%. So, some often suggest that male teachers should be selected over a certain percentage.

Currently, elementary school teachers are mainly graduates of universities of education. The new student selection regulations stipulate that the number of persons of a specific gender should not exceed a certain percentage of the quota. Therefore, these universities select a certain percentage of male students. South Korean men must serve in the military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o fulfill their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In the 1970s and 1980s, male students at universities of education could be exempted from active military service if they worked as teacher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fter graduation. Most kindergarten teachers are also women.



Another characteristic of primary education in Korea is the low percentage of private schools.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in Korea is heavily dependent on private schools. It uses private schools as an important part of the regular school education system. However, as of 2021, there are 73 private elementary schools, which is only about 1.2% of the total 6,157.

The universal expansion of elementary education in Korea was accomplished with the establishment of public elementary schools. Primary schools were established in the 19th century for the first time in Korea. Since then, as the number of public elementary schools has increased, the proportion of private schools has dropped sharply. Some private schools were established by protestant foundations. In addition, Catholic and Buddhist foundations have also established private schools. However, not all private elementary schools were established by religious foundations. The percentage of private elementary schools is low, and only a few have been established by Protestant missionaries. Therefore, the role played by foreign missionaries and Protestant denominations in the universal expansion of elementary education in Korea is not receiving much attention.

Private elementary schools in Korea do not receive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Therefore, these schools collect all expenses such as admission fees, tuition fees, special education course fees, and school bus fees from students and guardians. The overall cost of tuition is high. Private elementary schools select new students through a lottery from among applicants.

Everyone who graduates from elementary school goes on to middle school. In Korea, compulsory education is up to middle school. By 1965, only 60% of male graduates and 47% of female graduates went on to middle school. Those who did not go on to middle school after graduating from elementary school could help their parents work or stay unemployed. They could also find jobs in cities such as Seoul.



Between the 1960s and 1970s, many elementary graduates went to Seoul from the provinces and worked in sewing factories. Female elementary graduates often worked as housekeepers in well-to-do households.

Elementary education is responsible for producing manpower with basic literacy and numeracy skills. The 1930 national census during the colonial era surveyed the literacy skills of the adult population. Since it was a colonial era, the national census investigated both the ability to understand Korean characters as well as Japanese characters. In the case of Koreans, most of them could read and write both Korean and Japanese, or only Korean. However, it was rare to read and write Japanese without knowing Korean. So, the literacy rate shown in the table represents the Korean literacy rate.

The literacy rate in 1930 was 24.6%, with male students at 38.2% and female students only at 10.2%. Prior to 1930, primary education had not yet spread sufficiently. Especially this statistic shows the limited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women. In 1955, a national census was conducted again to investigate the literacy rate. At this time, the overall literacy rate was 77.7%. The male adult literacy rate was 87.8% and the female literacy rate was 67.9%, indicating that the male literacy rate was higher.

This rapid increase in these literacy rates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universal spread of primary education. Just as there was a gender gap in the spread of primary education, a similar gender gap is observed in the growth of adult literacy rates.

So far, I have summarized the characteristics and achievements of elementary education in Korea. Korea, like many other countries, is experiencing a feminization of teachers. In particular, 77%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are women.



Another characteristic of elementary schools in Korea is that the proportion of private schools is small. Currently, only 1.2% of all elementary schools are private schools. Unlike private middle and high schools, private elementary schools select students by lottery among applicants. They charge students and guardians a significant amount of tuition and other expenses.

Currently, all elementary school graduates in Korea go on to middle school, which is compulsory education. And in Korean history, the universal spread of elementary education in Korea seems to have led to a drastic decrease in literacy rates. Next time, I will review child 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Thank you.



3-5**Child 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Hello, everyone! Last time, I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achievements of elementary education in Korea. This time, I will take a close look at the development of child 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Korea.

Child 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have many things in common, so it is not easy to separate them. I will look at how childcare services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Korea have been developed. The child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system are closely related to the labor supply of women. So, I will also talk about how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the child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system have affected the female labor market.

The history of Korean kindergartens began in 1909 when Nanam Kindergarten was established in Hamgyeongbuk-do Province. However, by the 1970s, kindergarten education was fairly limited. It wasn't until 1984 that the ratio of students in kindergarten compared to the population aged 3 to 5 exceeded 10%. Since the 1980s, kindergarten education has grown steadily. In 2021, the kindergarten enrollment rate exceeded 50%.

Early kindergarten education was centered on private institutions. In 1965, there were 423 kindergartens, but 419 except for four public kindergartens were private kindergartens. However, in 1976, kindergartens attached to elementary schools began to be established. Further, since the 1980s, as the government has driven the growth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number of public kindergartens has increased rapidly. In 2021, there were a total of 8,660 kindergartens, more than half of which were public kindergartens. The kindergarten enrollment rate is still at 50% unlike elementary education. This is because childcare institutions such as daycare centers are used instead of kindergartens. A daycare center is a representative childcare institution, sometimes called a nursery school.



In 1990, as childcare facility installation standards were eased, the number of private and home childcare facilities increased significantly. In 1991, with the enactment of the Infant Care Act, childcare facilities were further expanded. Currently, most parents send their infants and toddlers to daycare centers or kindergartens.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are subsidized by the government, but they are not compulsory education. Therefore, children often attend private English classes and playgroups.

The graph on the screen shows the trend of daycare centers and children in care between 1999 and 2021 using childcare statistics. From the 1990s to around 2010, childcare through daycare centers continued to expand. As a result, the number of daycare centers and the number of children using daycare centers have both increased. However, since the early 2010s, the number of children and daycare centers has been declining. This is because Korea's birth rate is rapidly declining.

The reason behind the expansion of childcare through facilities such as daycare centers was a decrease in women's career breaks or an increase in career returns following childbirth. Government support was also involved. After the Infant Care Act was enacted in 1991, childcare subsidies began to be provided to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in 1992.



Since 1999, childcare fees have been subsidized for children under the age of 5 from low-income families in rural areas, and in 2002, it was expanded nationwide. Since then, income standards have been relaxed and support targets have been expanded. Since 2013, childcare fees have been subsidized for all children under the age of 5, regardless of income. For dual-income families and families with multi-child families, a higher amount of support is provided for general childcare. On the other hand, childcare fees were subsidized for children using daycare centers only. Therefore, it was pointed out that there is a problem with equity because families raising children at home do not receive support for childcare costs. Instead of raising children at home, these families sent them to daycare centers to receive childcare subsidies. As the supply of daycare centers became insufficient, it became more difficult for dual-income families to use these facilities. Therefore, the Child Home Care Allowance was introduced in 2009 to support children who do not use daycare centers.

Since 2012, Nuri Curriculum, the standard infant curriculum, has been supported for children aged 3 to 5. Early childhood education according to the Nuri Curriculum is available at both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The cost required for the curriculum is subsidized by the gover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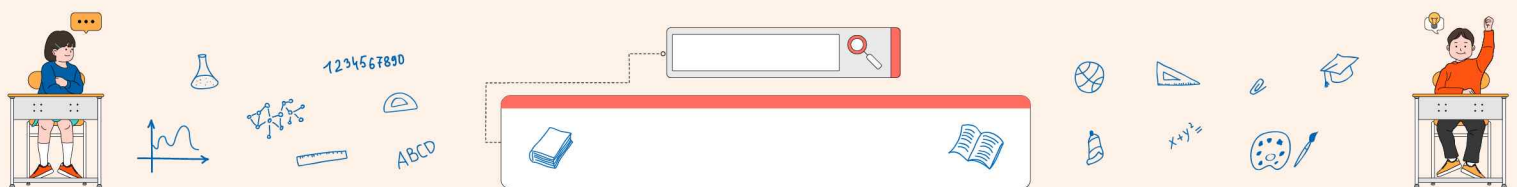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So far, I have summarized child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Korea. Fewer women quit their jobs because of childbirth and childcare. Therefore, childcare and kindergarten education through facilities such as daycare center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Korea.

The government provides financial support for home care, facility childcare, and kindergarten education.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created the Nuri Curriculum, a standard curriculum for children aged 3 to 5, and supported related expenses. The curriculum is conducted for both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Recently, the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the integration of kindergartens and childcare centers. Currently, in Korea, nursery institutions and kindergartens are in charge of child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pectively, for children of the same age. However, the government is working to break down the walls between the two facilities and take advantage of their strengths. There is an active opinion that childcare institutions should be converted into various types of kindergartens and integr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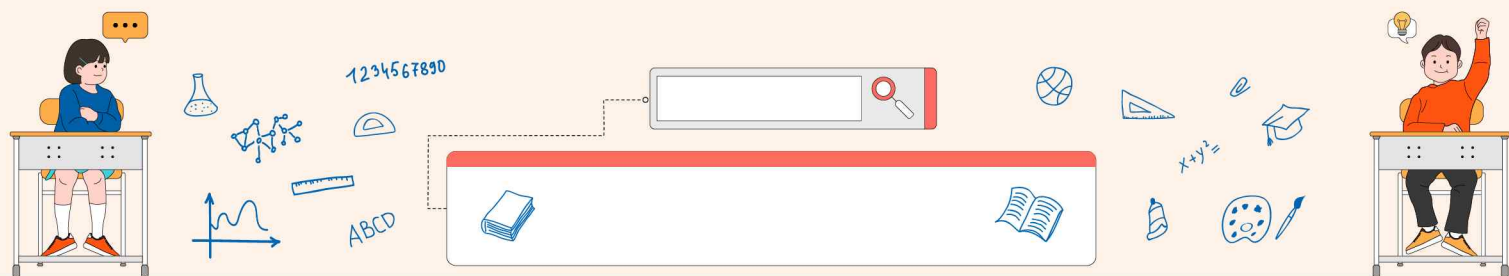
Let me wrap up the third section on “The Korean Economy and School Education.” In this section, I examined how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elementary education in Korea have been expanded in Korean history. I also looked at how the current system has been formed. In the next section, I will look at secondary education in Korea. Thank you.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讲义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第3周

幼儿和初等教育

3-1

殖民时期初等教育的发展1

各位学员，大家好！我是担任《韩国经济与学校教育》讲座的高鲜。在本次讲座中，将介绍韩国的幼儿教育和小学教育。在上一讲中，我们了解了韩国的学校教育制度在历史上是如何演变为现在的形式的。

在这次第三周的讲座里，将聚焦于韩国幼儿教育和小学教育，逐一讨论普遍扩大的过程和之后出现的问题和挑战。首先讲一下殖民时期的小学教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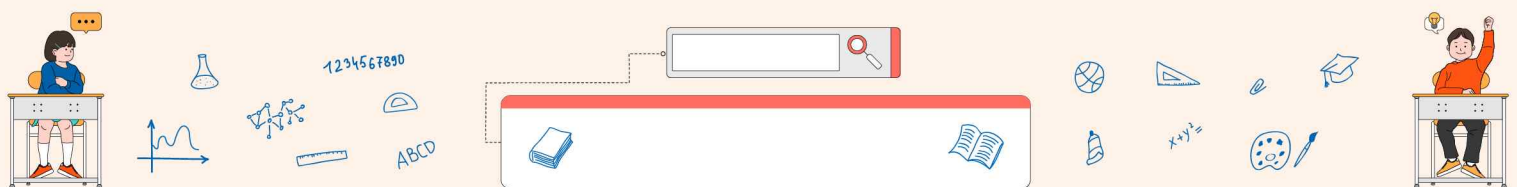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在殖民时期之前，韩国通过小学和中学建立了小学、初中教育体系。但是，目前在学校数和学生数方面尚未取得值得关注的发展。正如之前讲座中所说明的那样，殖民时期，这些教育制度进行了全面改革。

朝鲜人，即为韩国学生的小学教育机构更名为普通学校，中等教育机构的名字是男校为普高级通学校，女校为女子高级普通学校。

虽然当时仍然有小学、初中和高中，但这些学校是为居住在殖民地的日本人开设的。即使在殖民地，日本的教育也和日本一样进行。日本殖民政府最初并没有像日本一样教育韩国人的。

这张照片是1910年政府小学的课堂场景。坐在教室里的学生人数似乎在30到40人左右。所有的学生看起来都是男孩，一些头发以传统方式编成辫子，一些剪成较新的短发。

两位老师站在黑板前。穿着白色韩服的老师看起来是韩国老师。黑板上的字也是韩文。好像在教韩文阅读相关的内容。站在旁边穿着西装的人可能是日本老师。



在普通学校都教过朝鲜语，即韩国语，也教日语。还进行了汉文教育。还通过“修身”这一科目进行了道德、思想、国家观等教育。还进行了缝纫、手工艺、农业、商业等实践课程。照片是1910年代后期，在普通学校上的实践课。

随着基础教育的逐渐扩大，普通学校的教育年限延长到6年，就像日本的小学一样，授课内容也开始统一。1938年第3次朝鲜教育条例颁布后，韩国学校和日本学校的教育内容除国语科目外完全相同。过去分开培训的韩国学校教师和日本学校教师从此合二为一。

从那时起，朝鲜语成为选修课，校长可以决定不上课。随着1941年小学条例的颁布，朝鲜语学科消失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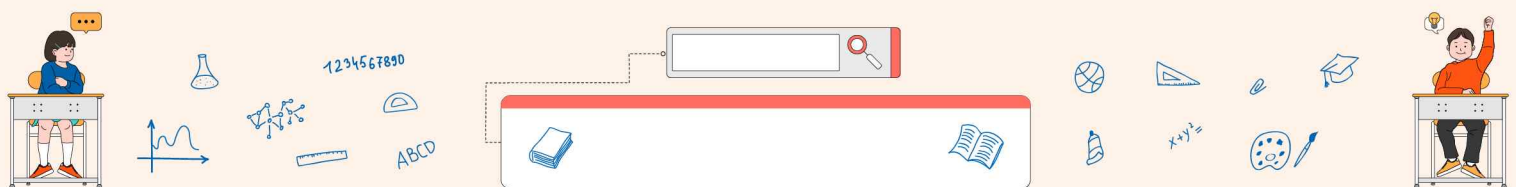
私塾是从近代以前就流传下来的教育机构，在殖民时代也一直在运作。私塾与作为正规初等教育机构的普通学校处于互补关系而非竞争关系。换句话说，不是不去普通学校就去私塾，而是在普通学校放学后去私塾的情况越来越多。

殖民时期统计显示，1911年全国共有16540个私塾。到1920年，私塾的数量增加到25482个。但此后持续减少，到1943年只剩下2679个。

私塾经常被拿来与新式教育相比较，认为是前近代的旧式的教育。照片是殖民时期日本驻朝鲜总督府制作的照片明信片。右上的传统学堂上课场景和左下的新学堂上课场景形成对比。看来是想通过私塾学校和普通学校的对比来讲述殖民时期教育正在发展的故事。

入学率的变化很好地体现了殖民时期基础教育数量增长的过程。入学率是入学学生人数与适龄人口的比率。然而，要计算殖民时期的入学率并不容易。首先，我们没有足够的人口统计数据。

在殖民时期，每五年进行一次全国人口普查，但调查的细节没有充分流传下来。保留下来的印刷形式的报告里只显示5岁为一组的不同年龄段的人口数。因此，很难确定准确的学龄人口，因此也很难计算出准确的入学率。



另一个原因是学龄的变动。殖民时期普通学校最初为4年，但后来延长至6年。在引入和推广学制的初期，有一点是学龄不明确。事实上，这些问题不仅在韩国很普遍，在小学教育的形成期也很普遍。

因此，许多研究文献计算的是学生占5至14岁人口的比率，而不是确切的学龄人口与学龄人口的比率。这个数字的好处是可以直接使用5岁儿童的人口统计数据，无需任何处理，并且可以在任何时间段、地区或国家进行一致的比较。

缺点是5至14岁的人口比平均小学年龄人口更广泛，因此入学率本身就低，根据各年龄段的人口结构变动，可能会推测到与实际入学率多少不同的数值或变化。

屏幕上显示的图表是利用人口统计和朝鲜总督府行政统计计算的5至14岁人口对比入学率。未进行国势调查(人口普查) 的年份的人口估计为对数线性趋势。蓝线显示普通学校的入学率。1910年韩国成为日本殖民地后，普通学校入学率有所增加，此后迎来了两次快速增长期。

第一个快速增长期是从1919年到1925年。1919年三一运动以后，日本的殖民地统治政策发生了变化，学校教育政策也发生了变化，小学教育开始膨胀。此后，一度停滞的入学率从1932年开始再次迅速增加。此时的增长趋势持续到殖民地末期。

黄线是私塾的人数占5至14岁人口的比例。这是一种私塾入学率。直到1910年代，私塾的入学率都高于普通学校。这可能是由于当时的韩国人更喜欢私塾而不是普通学校。

韩国人更喜欢普通学校，但这可能是由于普通学校不够而私塾足够多。这意味着普通学校的供应不足，所以私塾的入学率很高。入学率在上世纪1910年代有所上升，但从20年代开始下降。

普通学校是由政府建立并管理的学校，即公立学校。殖民时期之前，传教士或韩国人慈善家等就设立并运营私立学校，但这些私立学校的入学率很低，没有太大的意义。因为私立学校的数量没有达到有意义的程度。



5至14岁的入学率可以跟国际的入学率相比较。屏幕上的图表显示了1910年至1940年韩国、日本、台湾、巴西和印度小学教育入学率的变化。同时还显示出了亚洲平均值和世界平均值。当时日本已经实现了初等教育的普及。

因此，5至14岁的小学入学率一直保持在60%左右。世界平均水平从30%到40%不等，亚洲平均水平从1910年的10%左右增加到1940年的30%左右。

上世纪10年代殖民地朝鲜的小学入学率不到10%。当时虽然高于台湾和印度，但低于巴西，也低于亚洲平均水平。虽然图中未显示，但该水平低于毛里求斯、尼亚萨兰、北罗得西亚和南罗得西亚的非洲殖民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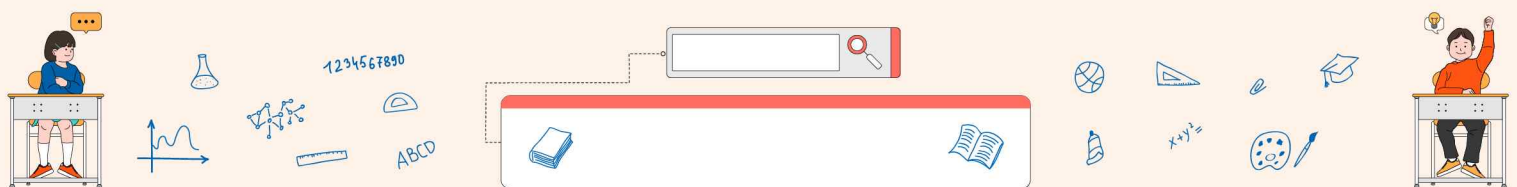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在殖民时期，朝鲜，即韩国的小学入学率稳步增长。但直到1940年，才赶上了亚洲平均水平和巴西的入学率。一个有趣的比较对象是台湾。台湾和韩国一样是日本的殖民地，但1910年，台湾的入学率低于韩国。此后台湾增长速度很快，并于1940年代达到日本水平。这意味着到殖民时期末期，台湾的初等教育几乎普遍扩大。

尽管台湾也是日本的殖民地，但对于为什么台湾的初等教育扩张速度比韩国快，人们提出了各种意见。也有观点认为，这是因为台湾在较早时期成为殖民地，而且人口规模和面积较小。还有一种解释是，台湾人比朝鲜人更配合，对殖民统治的抵抗力更小。

除此之外，高鲜和朴基周的研究还关注教育财政结构的差异。殖民地时期，台湾的小学教育财政由各级政府分担支持，上级政府的支持，对于财政充裕、能较快地扩大教育有很大帮助。

殖民地朝鲜的小学教育，即普通学校的财政对各地区的财政依赖度比台湾更大。因此，这说明每个地区都更多地受到为学校教育纳税的地主的影响，学校教育往往以地区精英为中心，而不是普遍传播。

尽管在殖民时期扩大了初等教育，但性别差距是入学率增长不如其他国家那么可观的原因。



为了计算更接近实际的数字，殖民时期末小学入学年龄为8至13岁，在这个曲线图中我们计算了小学入学率。很难估计8至13岁人口的实际规模，因此按照通常的使用的方法，假设为占总人口的14.3%。

如果按性别除以入学率，则能看到男性入学率变化与整体入学率变化相同。殖民时期初等教育的扩张意味着它主要是针对男学生的。另一方面，在1935年之前，女性小学入学率不到8至13岁人口的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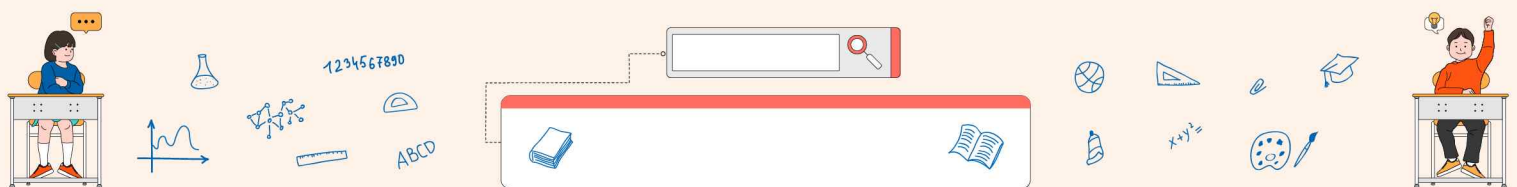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女性入学率直到1930年代才开始上升。直到1940年代，它才超过30%。当时，男性入学率接近70%。

以上，我们了解到了殖民时期小学教育的成立和数量的成长过程。随着更名为普通学校、小学、国民学校，殖民时期的小学教育在数量上取得了可观的增长。但是这种殖民时期小学教育的数量增长以男性为主，女性教育的扩大在1930年代过后才逐渐实现。

殖民地教育的另一个特点是日本和韩国的教育相互分离。1938年以后，虽然统一了日韩学校的名称和课程，但仍然分开进行教育。

殖民地初等教育的数量增长在两个时期尤为明显。第一次是从1919年到1925年，在三一运动之后。第二次是在1932年以后。殖民时期小学教育发展的另一个特点是，教育的扩张比同为日本殖民地的台湾要慢。

到殖民时期末期，台湾的小学入学率将接近日本。可以看出，初等教育在殖民时期普遍扩大。殖民时期的朝鲜虽然初等教育在数量上有所扩大，但入学率仍未达到殖民末期日本或台湾的水平。下一节课，我们将了解殖民时期基础教育数量增长的背景。



3-2

殖民时期初等教育成长II

各位学员，大家好!上一节课，我们了解到了殖民时期韩国初等教育的数量增长。这一节课，我们来看一下殖民时期基础教育数量增长的背景。

学校教育的数量扩张是由两个因素相互交织实现的。这就是供求关系。即使我们建造很多学校并提供教育机会，如果学生不想上学，学校教育也不会扩大。而且，无论有多少人想上学，如果没有足够的学校和教师供应来容纳很多学生，学校教育的数量也无法扩张。

殖民时期初等教育的数量扩张在供给和需求方面都发挥了重要作用。对学校教育的需求一直很大。殖民时期的经济增长和社会环境的变化，成为提高教育投资回报率和增加学校教育需求的契机。

但在殖民初期，学校教育供给的扩大，如对兴办学校、聘请教师等方面没有采取积极的措施。因此，在殖民时期作为小学教育机构的普通学校，不能容纳所有想受教育的人，所以通过考试选拔学生，由校长来决定。

幕上显示的曲线图显示了每年入学学生与申请普通学校的比例。它是普通学校申请录取率。可以看到每年都有变化，但高点低于90%，低点低至50%。这意味着即使在竞争不激烈的时候，也有十分之一的申请者被落榜，而在竞争激烈的时候，只有一半的申请者被学校录取。

这是一个平均合格率，实际上各地区之间存在很大差异，一些地区的接受率远低于一半。换句话说，虽然在殖民时期对初等教育的需求很高，但学校供应的扩张并不充分。如果学校的供应充足且速度快，学校教育的扩充就可以更早完成。

那么学校供给的扩大变化是如何的呢？屏幕上的曲线图显示了与5岁至14岁人口相比的普通学校数量、教师数量和班级数量。由于是人口增长时期，实际数量的增长更快。



每10000名5至14岁人口中的小学数量在1910年代后期开始增加。直到1930年代末，这种增长趋势一直保持稳定。换言之，可以说殖民时期的小学开设，比20、30年代的人口增长速度还快，而且稳步增长。

事实上，自三一运动以来，殖民地政府一直推行扩大兴办小学的政策。1919年起实行三个面至少设立一所普通学校的政策，1929年起实行各面至少设立一所小学的政策。1940年前后一度停滞不前的办学风潮，再度兴起，此后迎了解放。

每1000名5-14岁人口拥有教师人数和班级数呈几乎相似的趋势。可能是在小学教育中，一位老师负责一个班级。一名教师对应的教师人数的增加与入学率的增加呈相似的趋势。从1919年到1925年增长迅速，之后停滞了一段时间。大约从1934年开始，它又开始快速增长。

总而言之，殖民时期初等教育的数量扩张的主要原因是对教育的需求已经很高的条件下增加学校供应的结果。其中，教师的招聘显得尤为重要。因为当教师人数迅速增加时，入学率也随之增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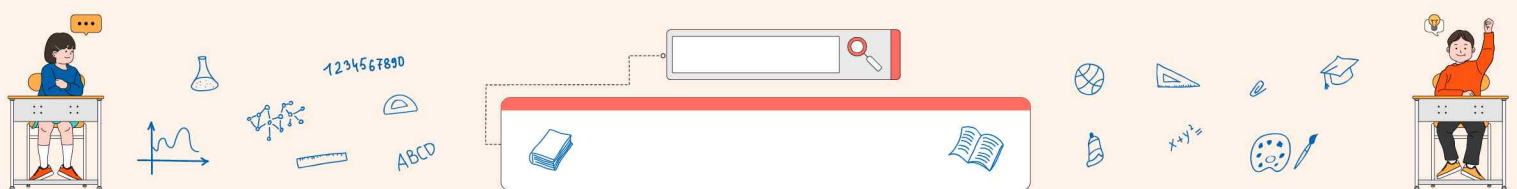
供给方面的主导作用也表明，殖民时期学校和教师供给的扩大可能加速了初等教育的普及。

殖民时期的小学和中学教育由韩国人和日本人分开进行。韩国教育和日本教育存在差异的情况反映在每名学生的学校经费变化上。

从屏幕上的曲线图可以看出，日本小学的平均每名学生的学校经费，即学校经费除以学生人数所得的值在50至60韩元之间。朝鲜人即韩国人就读的小学每名学生的学校经费约为30韩元，低于此水平。在20世纪30年代，甚至下降到20韩元。

韩国教育的投资低于日本教育所需的投资。这可能是由于学校设施投资水平或教师工资水平不同所致。也可能是因为班级规模的差异。

随着学生人数的增加，人均学校经费下降的趋势可以理解为规模经济。这是因为学校费用不会随着学生人数的增加而增加。



那么殖民地小学教育的费用是谁支付的呢？下图显示了小学收入如何按主要收入来源变化。普通学校财政的主要收入来源是地方税收的地方费、从中央政府朝鲜总督府获得的补助金、学生和监护人缴纳的学校经费以及其他地区维持和慈善家支付的捐款。

1919年之前，普通学校的建立和运作几乎完全靠政府补贴。从1919年开始，殖民地政府开始认真推行扩大初等教育的政策，地方财政收入的规模和比例均有所增加。

在需要建立学校的地区,自行征收税金,筹集资金,这种利用这些资金设立并办学的方式，在公立小学教育萌芽和扩散的美国和欧洲国家等地广泛使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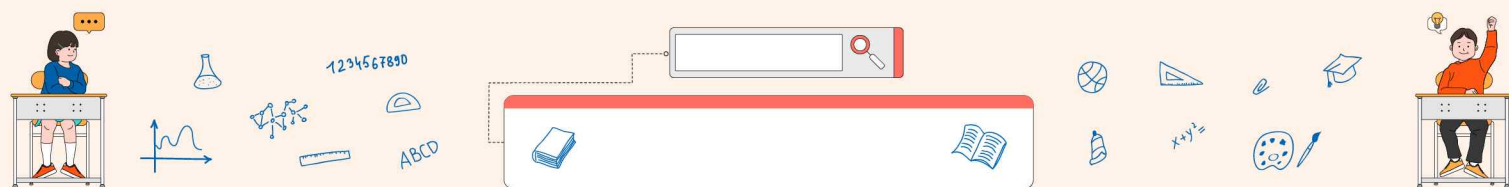
日本在明治维新后引进和发展近代初等教育时也借鉴了这种美国模式，并将其应用到殖民地朝鲜。部分地方资金后来在20年代后期转化为政府补贴。此后，直至20世纪30年代中期，政府补助的增加带动普通学校的财政收入增加，但从20世纪30年代中期开始，地方收入的比重再次大幅上升。

同时，学生或监护人支付对学校经费份额也很大。20年代和30年代初等教育扩大时，学校经费持续增加。学校经费平均占学校财政收入的20%左右。事实上，每个学生必须支付的学费负担是巨大的，也是阻碍普及初等教育的一个因素。

在捐款方面，它有助于增加学校的建设。特别是在20世纪30年代后期，捐款的规模和比例大大增加。

至此，殖民时期初等教育扩张的背景从教育需求、供给和财政三个方面进行了总结。殖民地时期，小学入学竞争激烈，通过入学考试选拔学生。激烈的入学竞争证明对教育的需求已经很高。由此可见，可以说供应方面是能够说明实际小学教育扩大的主要因素。事实上，入学率的增加与学龄人口人均教师数量的增加类似。

在财政方面，朝鲜人普通小学的投入水平低于日本小学。普通学校的财政收入主要是政府补助和地方税收，但学生或监护人缴纳的学费也占到20%左右。下一节课，我们将了解解放后初等教育普及的过程和背景。谢谢大家！



3-3

韩国基础教育的扩大

同学们好！上一节次，我们从教育需求、供给、财政等方面，了解了殖民时期基础教育扩张的背景。今天，我们将了解解放后韩国的基础教育是如何普遍扩大的。

解放后，在美军统治期间，初等教育经历了前所未有的数量扩张。制定将小学教育打造成义务教育的计划。教育方针决定满6岁儿童全部进入国民小学，7岁至11岁未就学儿童也全部入学。

此外，为了迅速增加教师人数，还设立了临时教师培训中心，并开设了中学毕业生速成课。将现有的日本学校改建为韩国学校，扩建教室以后，实行二部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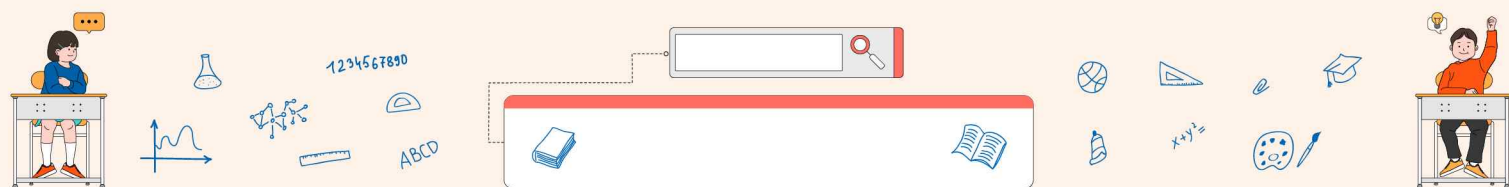
据1963年文教统计概况，到1945年8月15日解放时，国民小学共有2884所，教师19729人，学生约136.6万人。1948年政府成立时，小学数量增至3443所。教师人数几乎翻了一番，达到38600人。学生人数也增加了超过一百万，达到约2,426,000人。

查看入学率的长期趋势有助于我们了解小学的扩大过程。正如我在上一讲所说，殖民时期缺乏人口数据。因此，如果我们根据5至14岁人口计算入学率，可以创建一个一贯的长期时间序列。

在屏幕上显示的图表中，蓝线是小学入学人数与5至14岁人口的比率。虽然解放前后的数据非常稀少，但如果把所有可获得的1940年代和50年代的数据联系起来，可以发现从1935年左右到1960年左右，这个数字一直呈稳步上升的趋势。换句话说，韩国的基础教育普及可以说是从殖民时代末期到解放后的1950年代稳步进行的。

自20世纪60年代以来，5-14岁儿童的入学率一直停滞不前。大约从这个时候开始，就可以根据学龄的6-11岁人口来计算入学率。看看这些数字，可以看出入学率已经接近100%。

从20世纪60年代开始，还可以按3-5岁人口计算入园率。图中黄线为幼儿园入园率。自20世纪80年代以来，幼儿园的入学率真正提高了。直到20世纪70年代，幼儿教育只在限制的范围运营。



殖民时期的小学教育扩大主要以男生为主。虽然从20世纪30年代后期开始,女学生的小学教育入学率有所增加,但性别差距仍然很大。殖民地统计,1942年小学男生数为1219156人,女生数为533434人。男生和女学的比例是1 : 0.44。

1953年韩国战争结束时,小学男生与女生的比例约为1 : 0.65。10多年来,小学生性别比例有了明显改善,说明解放后女性的小学入学率比过去提高了。然而,正如1 : 0.65的数字所示,初等教育中的性别差距仍然存在。

从屏幕上的图表可以看出男女学生相比女生逐渐减少的趋势。理论上,如果学龄人口性别比例相等,初等教育性别差距消失,男女比例应该是1 : 1。

事实上,男生在学龄人口中的比例相当高。6至11岁人口中男生与女生的比在1 : 0.87和1 : 0.93之间有过浮动。因此,可以说初等教育中的性别差距在1970年左右消失,当时女生和男生的比例是0.9 : 1。

由此可见,在20世纪50年代和60年代,小学教育的性别差距一直在持续减少。考虑到男生的小学入学率已经很高,可以说20世纪50年代至60年代的小学教育的扩大是女性小学教育的扩大过程。

图中,自20世纪90年代中期以来男女学生相比女生人数减少与初等教育无关,而是反映了当时学龄人口性别比例的变化。

如果没有学校和教师供给的增加,小学教育的扩大很难实现。由于缺乏数据,很难把握到1950年代的办学趋势和教师人数的增加情况。但是,正如我刚才提到的,解放后学校和教师的数量急剧增加,而且这种趋势似乎一直持续到解放后。

小学教育虽然从1960年开始普及,但学校和教师供给持续增加。因为不仅学龄人口增加,而且有必要改善学校教育条件。从画面的图表可以看出,从1960年到1990年代,与学龄人口相比,小学数量和小学教师人数持续增加。



韩国学龄人口达到顶峰的时期是1980年前后。从2000年开始,学龄人口迅速减少。这一时期,每1000名学龄人口中学校及教师人数的急剧增加是因为学龄人口的减少。

师资供应的增加带来的教育条件的改善也可以从教师和学生人数比的变化中看出。在殖民时代初等教育迅速扩张的时期,教师与学生的比是1:80,有时学生的数量超过80。然而,解放后教师与学生的比是1:70,此后学生数一直下降。

目前,每位小学教师负责相当于14名学生。小学除了班主任外,还有各学科的老师,所以实际班级人数会比这稍微多一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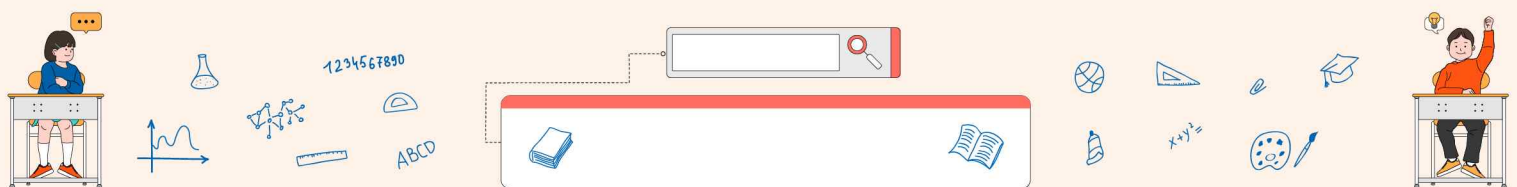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在小学教育的膨胀期,克服校舍和师资短缺的方法之一就是实施二部制以上课程。二部制课程是将一个教室分成两个班级交替使用进行教育的方式。也有根据需要实施三部制或四部制授课的情况。

从屏幕上的图表上可以看出实施二部制课程的小学数量的变化。从20世纪60年代中期开始,这些统计数据显示到1970年代,二部制急剧减少。由于学龄人口仍在增长,二部制的减少可以看作是学校和教师供应增加的结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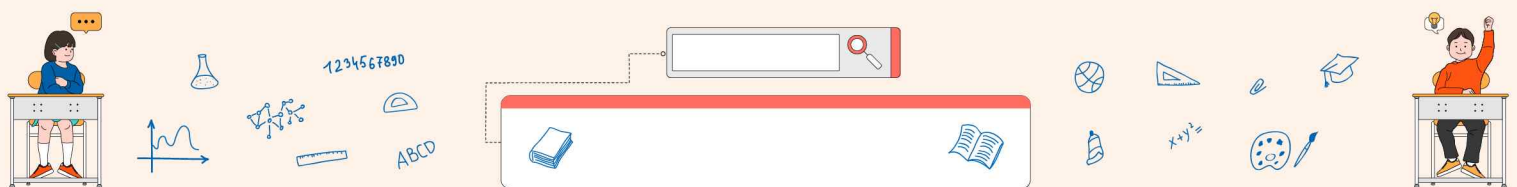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扩大初等教育时期,学生人数少的地区很多情况是在附近建立分校而不是建立新学校。到20世纪60、70年代,小学分校数量超过800所。

20世纪80年代,分校数量有所增加,但由于城市化进程,农村和林区学生人数减少,现有正规学校转为分校。然而,自20世纪90年代以来,这些地区的学生人数因人口变化和迁移而减少和消失,分校的数量也逐渐减少。

至此,我们已经了解了解放后韩国普及基础教育的过程。增加学校和教师的供应对于扩大初等教育仍然很重要。1960年前后,初等教育普及,其中一个重要因素是学龄女性入学率的提高。这是因为在殖民时期,男性小学入学率已经大幅增加。



在入学率充分提高之后，小学和小学教师的人数相对于适龄人口的比例仍在继续增加。这意味着政府对基础教育的投入仍在继续。随着持续投资，教育条件有了很大改善，一名教师所负责的学生人数持续下降。下一节课，我们就来看看韩国的初等教育具有哪些特点以及哪些成就。谢谢大家！



3-4

韩国初等教育的特点

同学们好！上次我们了解了解放后韩国普及初等教育的过程。今天，我们就来看看韩国初等教育发展至今的成就，以及它在历史上有怎样的特点。

韩国小学教育的一大特点是女教师的比例高。从2021年的统计来看,小学教师中有77%是女性。但并不是从一开始就是这样的。1960年左右,小学教师中女性的比例只有20%左右。

然而,从那以后,女教师的比例逐渐上升。1990年,小学教师中女性比例超过50%。而自2004年以来,已经超过了70%。因此,常有意见提出,男教师应按一定比例或更多比例选拔。

目前,小学教师主要是教育大学的毕业生。教育大学新生选拔时有规定,特定性别人数不得超过名额的一定比例。其实就是选择一定比例的男生。

在韩国,男性必须在一定时期内服兵役以履行兵役义务。在70年代和80年代,有一种制度,教育大学的男生如果毕业后担任一定时期的教师则可以免服现役。另一方面,在幼儿园,几乎所有的老师都是女性。

韩国小学教育的另一个特点是私立学校比率低。韩国的中等教育和高等教育很多都是依赖私立学校,将私立学校作为正规学校教育体系的重要部分。但是以2021年为基准,私立小学有73所,仅占全体6千157所的约1.2%。

韩国基础教育的普及是随着公立小学的建立而实现的。19世纪最早建立的新学校是私立学校,但随着公立小学数量的增加,私立学校的比例急剧下降。

一些私立学校是新教教派设立的宗教私立学校,而天主教和佛教学校也设立了私立学校。但是,并非所有私立小学都是宗教私立学校。由于私立小学的比例较低,而且其中一些是由新教传教士创办的,因此外国传教士和新教教派在韩国普及基础教育中所起的作用并未受到太多关注。



韩国的私立小学不接受政府的财政支持。因此，入学金、学费、特殊教育课程费、校车费等所有费用均向学生及其监护人收取。学费负担较高。私立小学在申请人中通过抽签的方式选择新生。

现在，小学毕业生都会继续升入中学。这是因为初中教育都是义务教育。到1965年，只有60%的男校毕业生和47%的女校毕业生进入中学。国民小学毕业后没上中学的人，有的在家里帮父母干活，有的什么都不干，有的去首尔等城市打工。

据说上世纪60年代和70年代,小学毕业后从外省来到首尔等地,在缝纫厂工作的人很多。也有一些女性在富裕的家庭里做保姆。

初等教育也可以被视为负责培养具有基本识字和算术技能的人才。据说殖民时期，1930年的国势调查，即今天的人口普查，考察了成年人口的识字能力。

在殖民时期，对韩文和日文的理解能力都进行了调查，大部分韩国人都可以读写韩文和日语或只能读写韩文,而不懂韩文,只会读写日语的情况很少。因此，可以将表中的识字率视为韩文识字率。

1930年识字率为24.6%，男学生略高，为38.2%，女学生仅为10.2%。这一统计数据与1930年之前初等教育尚未充分普及，受教育机会有限，尤其是女性受教育机会的事实相符。之后，1955年再次进行人口普查，对文字理解进行了调查。此时，整体识字率为77.7%。男性成人识字率较高，为87.8%，女性识字率为67.9%。识字率的迅速提高可以看作是受到初等教育普及的显著影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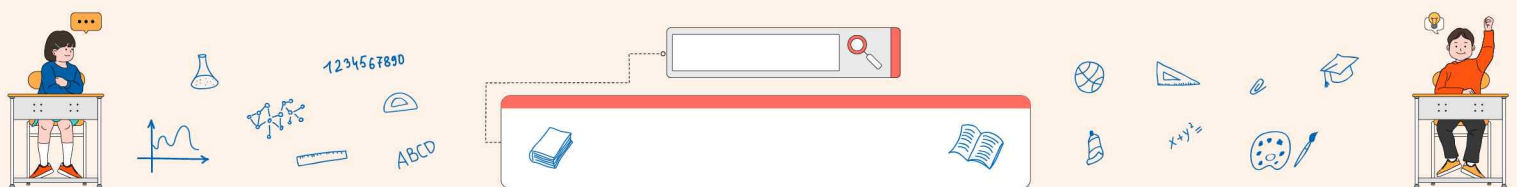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另一方面,正如小学教育的扩散出现性别差距一样,在成人阅读理解率的增加趋势上,性别差距也相似。

以上,我们整理了韩国小学教育的特点和成果。韩国与其他许多国家相似,正在经历教职的女性化。特别是小学教师,目前全体人员的77%是女性。



韩国小学的另一特点是私立学校的比率小。目前,全体小学中只有1.2%左右是私立学校。与私立初高中不同,私立小学在申请人中通过抽签的方式选择学生,并向学生和监护人征收相当数额的学费等费用。

目前,韩国所有小学毕业生都进入中学,这是义务教育。纵观历史,初等教育在韩国的普及似乎导致了识字率的急剧下降。下一节课,我们将了解保育和幼儿教育。谢谢大家!



3-5

儿童保育和幼儿教育

同学们好！上次，我们了解了韩国基础教育的特点和成就。这一次，我们将看看儿童保育和幼儿教育的演变。

保育和幼儿教育有很多重叠的部分,不容易分开。让我们来看一下韩国的保育服务和幼儿教育是如何以现在的形态形成的。另外,保育及幼儿教育制度与女性的劳动供给也密切相关,保育和幼儿教育制度的整顿和发展如何影响女性劳动市场也一起讨论一下。

韩国幼儿园的历史始于1909年在咸镜北道设立的“罗南幼儿园”。然而，到20世纪70年代，学前教育相当有限。直到1984年，幼儿园学生占3-5岁人口的比例才超过10%。80年代以来，幼儿园教育稳步增长，到2021年，幼儿园入园率将超过50%。

早期幼儿园教育以私立机构为中心。1965年有幼儿园423所，除4所外，419所为私立幼儿园。然而，小学附属幼儿园于1976年开始设立，80年代以来，随着政府主导幼儿教育的发展，公立幼儿园的数量迅速增加。2021年共有幼儿园8660所，其中公办幼儿园有5000余所，占一半以上。

幼儿园入学率与小学教育不同,仍停留在50%的原因是,比起幼儿园,去“幼儿之家”（以下“日托所”）等保育机构的情况也很多。日托所是代表性的保育机构,过去曾被称为托儿所,也被称为新村幼儿园。

1990年，随着保育设施设置标准的放宽，私人 and 家庭托儿设施的数量大幅增加。1991年，随着《婴儿保育法》的颁布，托儿设施进一步扩大。目前，大多数家庭将婴幼儿送到日托所或幼儿园。

日托所和幼儿园由政府补贴，但由于教育不是义务教育，也有上私立补习班运营的英语幼儿园和游乐学校的情况。



从儿童保育统计数据可以看出,1999年至2021年日托所和受托儿童的趋势。从20世纪90年代到2010年左右,通过日托所提供的托儿服务不断扩大。结果,日托所的数量和去日托所的儿童数量都增加了。然而,自2010年初开始,日托所和保育儿童人数一直在下降。这是随着韩国出生率急剧下降而出现的现象。

通过日托所等设施扩大儿童保育的背景有,女性生育之后职业中断或减少、重新复职等原因。政府的支持也有关系。1991年《育儿法》颁布后,1992年开始向低收入家庭的儿童提供育儿补贴。

1999年起,对农村低收入家庭5岁以下儿童实行保育费补贴,2002年扩大到全国。此后,放宽了收入标准,扩大了支持对象,并从2013年起,对所有5岁以下的儿童,不论收入多少,都提供育儿补贴。对于双职工家庭和有多个孩子的家庭,提供的支持金额高于一般的定制儿童保育费。

另一方面,有人指出,去保育所的儿童,有育儿费支持,但对在家抚养的儿童则没有支持,存在公平性问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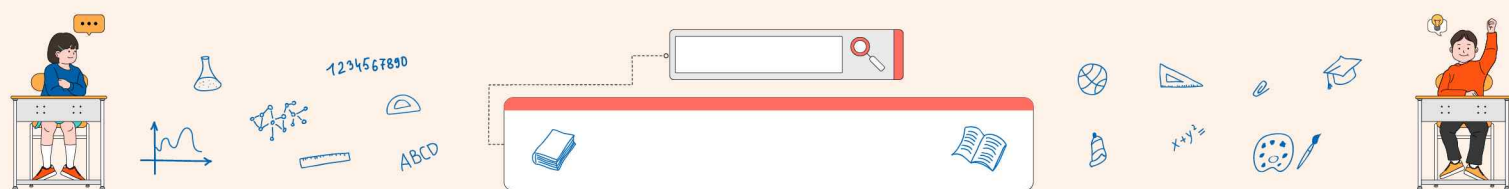
为了领取托儿补贴,孩子不是在家养育,而是被送到托儿所,但因托儿所的供给变得不足,存在双职工家庭更难利用托儿设施的问题。因此,2009年推出了家庭儿童保育津贴,以支持不去日托所的儿童家庭。

从2012年开始,满3岁到5岁的儿童将支援幼儿标准教育课程"Nuri课程"。根据Nuri课程,幼儿教育在日托所和幼儿园都可以进行,并且政府支援各设施Nuri课程所需的费用。

以上我们总结了韩国的保育及幼儿教育。随着因生育及育儿而女性辞职的情况减少,在韩国通过日托所等设施的保育和幼儿园教育都大幅增加。

政府对家庭养育、设施保育、幼儿园教育都给予财政支持。特别是制定满3岁到5岁的幼儿标准教育课程"Nuri课程",并支援相关费用。Nuri课程教育在幼儿园和幼儿园都在进行。

最近政府正在推进幼儿园和托幼机构的整合。对于同龄幼儿,保育机构和幼儿园分别负责保育和幼儿教育,这是打破两者之间的隔阂,发挥优势的尝试。积极提出将保育机关改为多种形态的幼儿园合并的意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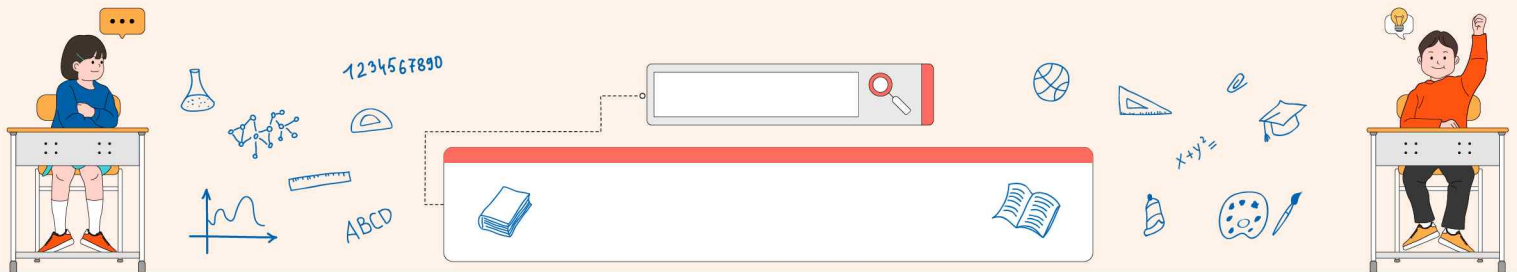
“韩国经济与学校教育”第三讲到此结束。在本次讲座中，我们以韩国的幼儿教育和基础教育为中心，了解了它在历史上是如何扩展的，以及通过什么途径形成了现在的体系和形态。下一讲，我们将了解韩国的中等教育。谢谢大家！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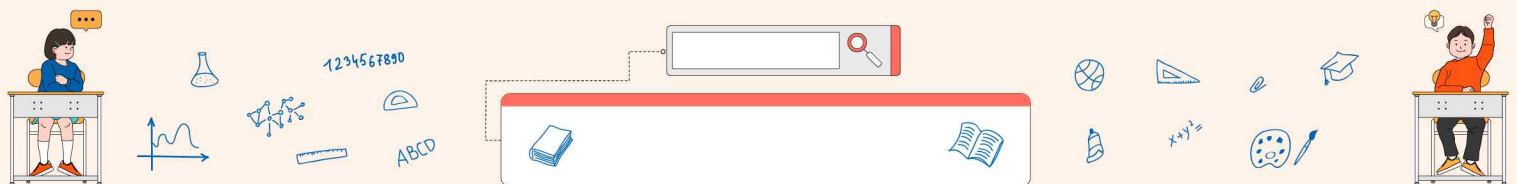
01 다음 중 식민지기 초등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분

- ① 식민지기에서는 한국인 초등학교와 일본인 초등학교가 분리되어 운영되었다.
- ② 식민지기에도 한동안 서당이 운영되었다.
- ③ 식민지 정부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보통학교와 민족자본의 투자로 설립되어 운영된 서당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였다.
- ④ 식민지기 초등교육은 남성 위주로 이루어졌고, 여성 교육은 제한적이었다.

정답 ③

해설 식민지기 초등교육과 서당교육은 서로 경쟁관계라기보다는 보완관계를 가졌습니다. 조선인 초등교육기관인 보통학교와 서당을 동시에 다니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서당의 수는 1920년까지 크게 늘어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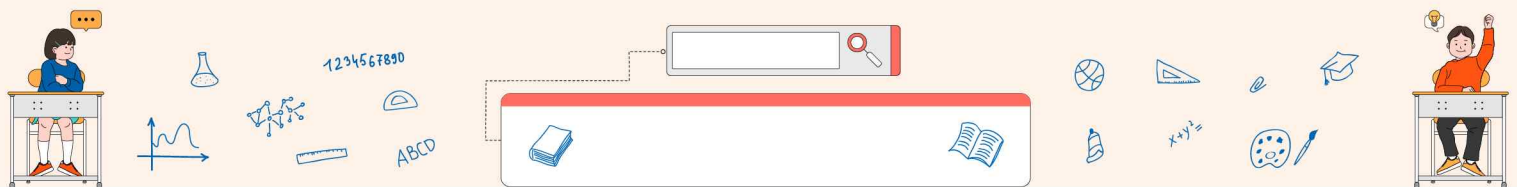
02 다음 중 식민지기 초등교육의 확대 과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0분

- ① 식민지기 초등교육 취학률은 일본보다는 낮았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 및 국가들보다는 높은 편이었다.
- ② 식민지기 초등교육기관 취학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 ③ 식민지기 초등교육에 대한 수요는 높은 편이었으나 학교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였다.
- ④ 식민지기 초등교육의 확대 과정에서는 교사 채용의 증가가 중요했다.

정답 ①

해설 식민지 조선의 초등교육 취학률은 1910년대에는 아시아 평균보다 낮았고, 많은 아프리카 식민지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1940년대가 되면 같은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만은 일본 수준으로 초등교육이 확대되었지만, 식민지 조선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03 다음 중 초등교육의 성별 격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분

- ① 1942년 국민학교의 남학생 1인당 여학생 수는 약 0.44명에 불과했다.
- ②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초등교육의 성별 격차는 꾸준히 감소했다.
- ③ 1970년 무렵부터 초등교육의 성별 격차가 사라졌다.
- ④ 1990년대 중반 이후 남성에 비해 여성의 초등교육 기회가 다시 제한되기 시작했다.

정답 ④

해설 1990년대 중반 이후 남학생 1인당 여학생 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초등교육과는 무관하고, 당시 취학연령 인구의 성비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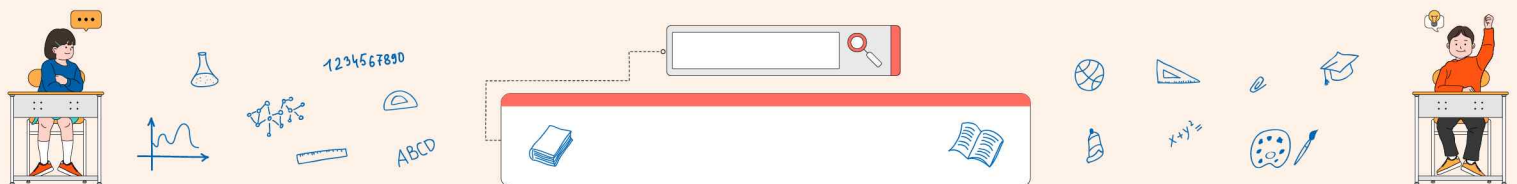
04 다음 중 2부제 수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0분

- ① 학생 수에 비해 학교 건물과 교사가 부족할 때 사용한 수업 방식이었다.
- ② 2부제 수업 실시 학교 수는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③ 제1부에서는 인문계 교육, 제2부에서는 실업계 교육을 실시했다.
- ④ 2부제 수업의 실시로 인하여 교육재정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답 ①

해설 2부제 수업은 하나의 교실을 두 개 학급이 시간을 나누어 교대로 사용해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학교 건물과 교원이 부족할 때 활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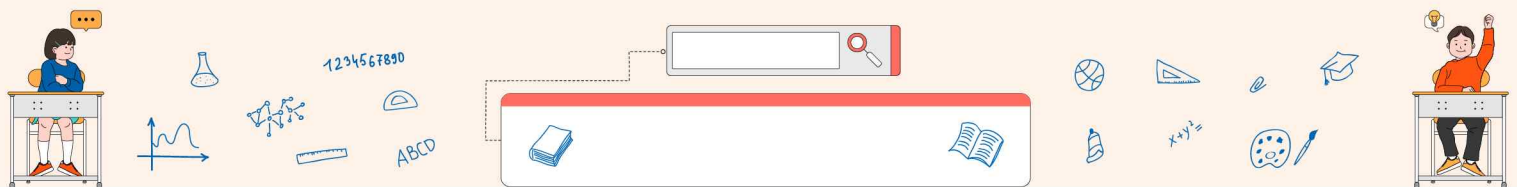
05 다음 중 한국 초등교육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0분

- ① 여성 교원의 비율이 높아, 최근 초등교원 중 여성 비율은 70%를 넘는다.
- ② 사립학교의 비중이 낮고, 대부분 공립 초등학교를 통해 초등교육이 이루어진다.
- ③ 초등학교 졸업생들은 모두 중학교로 진학한다.
- ④ 높은 투자 수준에도 불구하고 국제비교 시험 성적으로 나타나는 교육 성과가 낮다.

정답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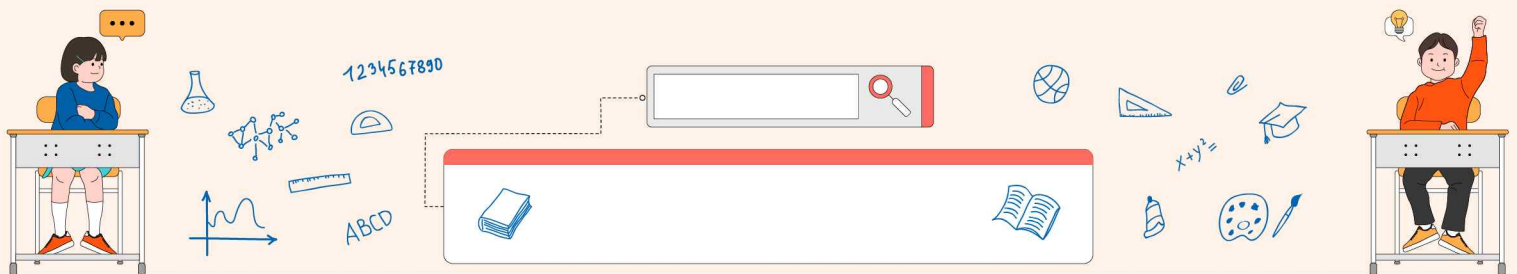
해설 한국 초등교육의 투자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며, 국제비교 시험 성적 또한 최상위권에 속한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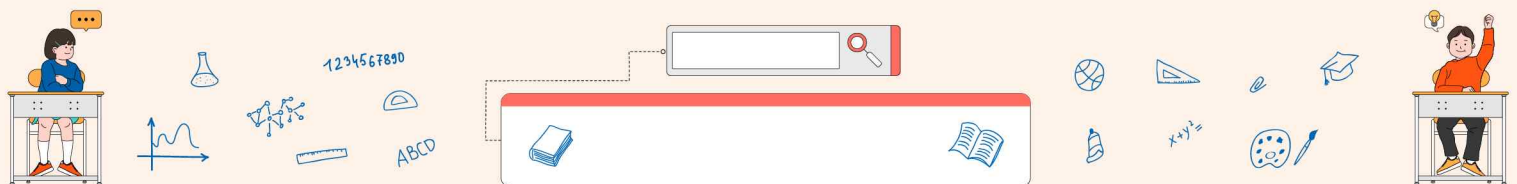
-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A4 한 장 정도 작성하면 됩니다.
- 다른 수강생이 남긴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답변으로 남겨도 토론 점수가 인정됩니다.

주제

한국의 역사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초등교육을 보편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어떠한 점들이 중요했을까요?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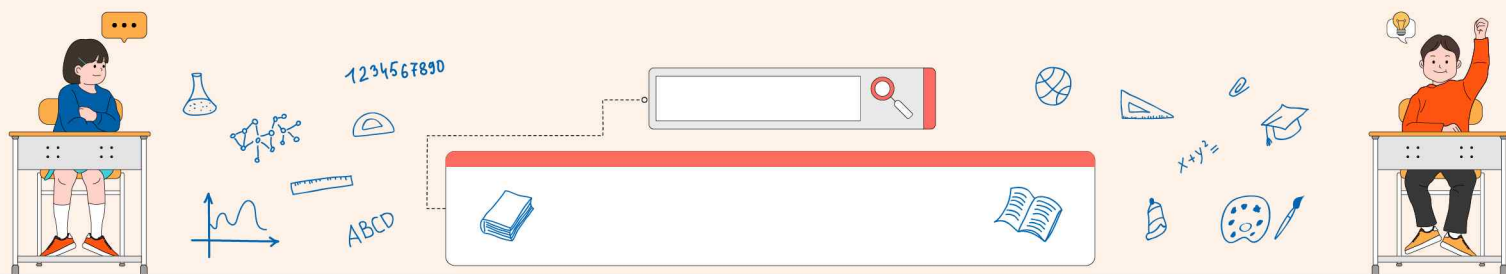
근대화와 경제 성장 속에서 초등교육에 대한 수요는 높은 편이었지만 공급 부족이 보편적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식민지기 학교들은 수업료를 징수했고, 학교는 기부금을 재원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격적으로 학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충분한 재정지원이 필요했습니다. 교사의 양성도 중요했습니다. 급증하는 교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임시교원양성소 등을 설치하여 운영했습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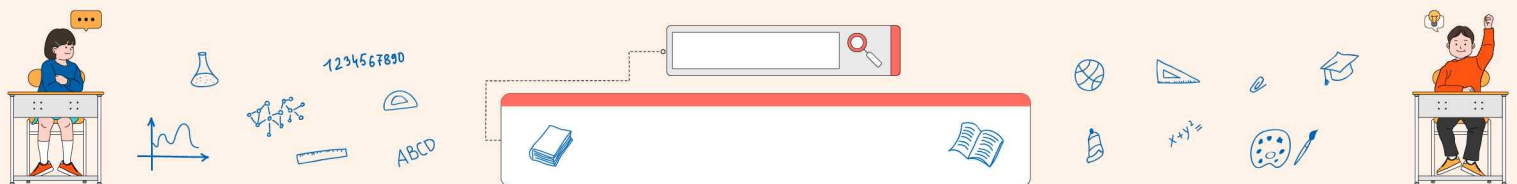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도서

- 교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1998. 교육50년사. 교육부.
-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2007. 대한민국 교육 40년. 한스미디어.
- 김영우. 1999. 한국초등교육사. 한국교육사학회.
- 오성철. 2000.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 이만규. 2010. 다시 읽는 조선교육사. 살림터.
- 중앙대학교 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74. 문교사: 1945-1973. 중앙대학교출판국.
- 한국교육개발원. 1994.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I) - 개화기의 학교교육.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1997.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II) - 일제시대의 학교교육.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1998.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III) - 해방이후의 학교교육. 한국교육개발원.



- 중부교육지원청. 기록 속의 식민지 교육, 일제강점기의 보통학교

● MSG. [라떼말이야] 60년 대 초딩들의 학교생활! □ | 한 학년에만 1,500명!
#라떼말이야 #MSG (MBC 140928 방송)

- 엠빅뉴스. 교실이야! 콩나물시루야! 80년대 초등학교 오죽하면 2부제 수업까지